

6월 Market Index			
↓ 코스피	2576.20	↓ 코스닥	807.03
	(-15.11)		(-0.96)
↓ 금리 (한국은행)	3.292	↓ 환율 (원/달러)	1327.60
	(-0.020)		(-3.20)



저가폰 늘리는 제조사… 브랜드 이미지 훼손 우려도

☎통신비 인하 빛과 그림자

정부 “단말기 부담 낮춰라”

글로벌 시장 대상 제조사들 난감
요구 반영 위해 라인업 다변화

삼성 상반기 갤럭시 A15·35 출시 유력
최하급 모델 제외 모두 국내 풀어

정부가통신 요금 부담 경감에 힘을 쏟고 있다. 통신 업계는 물론 단말기 제조사에도 가격 인하를 요청하고 나섰다. 다만 국가 경제 수준 대비 통신비 부담이 크지 않은데다가, 이미 다양한 가격대 단말기가 유통 중인 상황이라 그렇다할 묘안은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단말기 제조사들은 사업 전략 수립에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4면>

6일 국립전파연구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10일과 31일 각각 갤럭시 A15와 A35 전파 인증을 완료했다. 상반기 출시가 유력시된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에도 갤럭시 A54를 SK텔레콤 전용 모델인 ‘갤럭시 퀀텀4’로, 갤럭시 M44를 KT 전용 모델



삼성전자가 국내에서 판매중인 A시리즈. 통신사 전용으로 A54와 M44도 판매 중이다. 상반기까지 2개 이상을 추가할 예정이다. /삼성닷컴

‘갤럭시 점프 3’로 내놓은 바 있다. 올 초에는 갤럭시A25도 출시했다.

갤럭시 A 시리즈는 보급형 모델로,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 신흥 시장을 겨냥해 개발됐다. 한때 9개에 달하는 라인업으로 구성됐지만, 지난해에는 4를 제외하고 0부터 5까지 5개 모델로 출시돼왔다. 대신 국내에서는 판매량이 저조해 일부 라인업만 도입했다. 올 상반기까지 최하급 모델인 0번대를 제외하고 모두 국내에서 구매할 수 있을 전망이다.

삼성전자는 다양한 라인업으로 더 많은 사용자 요구를 충족하겠다는 방침을 지켜왔다. 글로벌에서도 A시리즈와 함께 인도 등 특정 국가를 겨냥해 M시리즈도 출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국내에서까지 A시리즈 라인업을 확대한 이유가 지난해 단말기 부담을 완화해달라는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요청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고 있다. 실제로 최저가 모델인 갤럭시 A10번대 시리즈는

A13 이후 국내 출시가 불투명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2년만에 A15로 돌아왔다. 지난해 출시한 갤럭시S23 FE도 갤럭시S23 판매량이 견조한데다가 갤럭시S24출시를 앞두고 나와 판매 간섭이 우려된 바 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S24도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에 판매하고 있다. 전작과 비교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으며, 기기 반납 지원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새로 마련하며 실구매 가격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문제는 정부가 부담 완화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 방통위는 지난달에도 삼성전자 영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을 만나 추가로 협조를 요청했다. 이미 갤럭시 A15와 A35 인증을 마쳤거나 인증 단계 중이던 시점이다. 삼성전자가 단말기 지원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국내에 인도 등 해외에서 판매하고 있는 M시리즈 등 저가 스마트폰 라인업을 확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강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단말기 가격 책정과 제품 출시 등은 시장에서 결정해야한다며, 단지 소비자 부담을 줄여달라는 요청일 뿐이라고 밝혔다. <4면에 계속>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최재원·구본상 등 980명 특사 단행

尹 대통령, 취임 후 네번째
“활력있는 민생경제 주안점”

윤석열 대통령이 45만여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 구본상 LIG 회장 등 경제인을 비롯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우현 전 자유한국당 의원, 김대열 전 기무사 참모장, 지영관 전 기무사 참모장 등이 명단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 감면 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 단행은 취임 이후 네 번째로, 2022년 8월 광복절, 2022년 12월 신년, 지난해 8월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사면을 발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 있는 민생 경제에 주안점을 뒀다. 운전면허 행정 제재를 특별 감면하고, 식품접객업자, 생계형 어업인, 여객화물운송업자들에 대한 각종 행정 제재의 감면을 추진한다”며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 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 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며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 경제에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무회의 직후 법무부는 브리핑을 통해 7일자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청년, 운전업 종사자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경제인, 전직 주요공직자, 정치인 등 980명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여객·화물 운송업, 식품접객업, 생계형 어업, 운전면허 등 행정 제재 특별감면 조치와 공무원 징계사면 등은 총 45만5398명에 대해 실시하고, 모범수 942명도 가석방한다.

우선, 기업 운영과정에서 벌어진 일로 실행 복역을 마쳤거나 집행유예 기간이 지난 경제인 5명을 복권하기로 했다. 복권 대상에는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이 포함됐으며 나머지 3명의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내년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의료계, 파업 예고

2025학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
19년 만에 정원 65% 가량 늘어
의협 “증원 강행 시 즉각 총파업”

정부가 오는 2025학년도 대입에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려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 지난 2006년 3058명으로 조정된 이후 19년 만에 정원의 65% 가량이 늘어나는 셈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며 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당분간 진통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부는 부족하나마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2000명이 추가로 입학하게 되면 2031년부터 배출돼 2035년까지 최대 1만 명의 의사 인력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00명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 발표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확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보건통계 2023’에 따르면 국내 임상 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못 미친다. 복지부에 의하면 2035년까지 의사 수가 1만5000명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 장관은 “늘어나는 의대 입학정원의 대학별 배정은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

에,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할 것”이라며 “특히 각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 시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의대 정원을 늘리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당시 전공의 파업 등 의료계 반

발에 의해 무산됐고, 복지부와 의료계가 의대 정원 문제를 같이 협의하겠다는 9·4의정합의를 체결했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난해부터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포함한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논의를 했으나 절대적인 의사 수가 부족하다는 복지부와 의사 수가 아닌 재배치 문제라는 의협의 입장이 부딪히며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의료계는 강하게 반발하며 집단 파업을 예고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 회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의대증원을 강행할 경우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의협은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의대증원을 일방적으로 발표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3면에 계속> /이세경 기자 seilee@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尹 “노사 문제, 지속가능성이라는 큰 틀에서 논의돼야”
▲이재명, 선거제 당론 추진 앞서 “본인 뜻과 달라도 흔쾌히 함께 해달라” /사진 뉴시스

▲윤재욱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뱅뱅이 에도 의사 수 충분하다 말할 수 있나”
▲輿 정영환 공관위원장 “야당대표 유불리로 선거제 결정 유감”



▲홍익표, 조정훈 법사위 버티기에 “얼마나 구태스런 행동인지 돌아봐야”
▲이원욱·조응천, 제3지대 세력에 통합 공관위 구성 제안 /사진 뉴시스

‘뷰티 양대산맥’ LG생건·아모레 실적부진 대응책은

M&A로 동력 확보, 美·日 집중공략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이 올해 해외 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해 실적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중국에서 벗어나 미국, 일본 등을 집중 공략한다는 전략이다.

6일 화장품 업계에 따르면 국내 대표 화장품 기업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의 2023년 실적이 공개된 가운데 두 회사 모두 부진한 실적 원인으로 중국 매출 감소를 꼽았다.

LG생활건강의 2023년 연간 매출은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5.3% 감소한 6조8048억원, 영업이익은 31.5% 감소한 4870억원이다. 이 가운데 뷰티 사업의 연간 매출은 2조8157억원으로 전년 대비 12.3% 감소했다. 영업이익은 1465억원으로 전년 대비 52.6% 감소해 반토막 났다.

LG생활건강에 따르면 중국 수요 약세로 뷰티 사업에 전반적인 수익성이 하락했다. 해외 시장 매출이 2조323억원으로 전년 대비 6.9% 감소했는데, 이 역시 중국 시장에서의 매출이 19.6% 감소해 악영향을 미쳤다. LG생활건강의 전체 매출에서 해외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30%인 가운데 주요 지역별 매출 비중은 중국 11%, 북미 9%, 일본 5% 순이다.

아모레퍼시픽의 실적도 부진하다. 아모레퍼시픽그룹의 2023년 실적은 매출 4조213억원, 영업이익 1520억원이다. 지난 2022년 동기 대비 매출은 10.5%, 영업이익은 44.1% 감소했다. 이는 매출에서는 4737억원, 영업이익은 1199억원이나 증발한 규모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도 해외 사업 매출에서 6%의 하락세가 나타났는데 해외 사업 중 아시아 매출에서 중국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50% 초반이다. 중국 사업 적자로 아시아 전체 영업이익도 적자전환했다.



LG생활건강은 지난 2023년 9월 색조 브랜드 ‘힌스’를 인수해 일본 화장품 시장으로의 진출을 가속화했다. /LG생활건강

LG생활건강 작년 매출 6.8조
전년비 5.3%, 영업이익은 31.5% ↓
日 인지도 높은 ‘힌스’ 지분 인수

아모레퍼시픽 매출 4조 10.5% ↓
코스알엑스 지분 93.2% 취득
북미·유럽 등 140여개국 진출

이러한 상황에서 증권 업계는 중국에서의 적자 축소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아모레퍼시픽 자회사로 편입한 코스알엑스에 대해서는 기대감을 높였다. 아모레퍼시픽이 코스알엑스의 지분을 추가 인수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한 데 따른 분석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 2021년 9월 코스알엑스 지분 38.4%를 취득했다. 당시 잔여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매수청구권을 부여받았고 지난 2023년 10월 해당 옵션권을 행사했다. 이로써 아모레퍼시픽은 코스알엑스의 지분 93.2%를 보유하게 됐다.

아모레퍼시픽에 따르면 코스알엑스는 민감 피부를 위한 저자극 스킨케어 브랜드로 ‘스네일 라인’, ‘THE RX 라인’을 내세워 글로벌 스킨케어 시장에서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60% 이상의 매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22년에는 2044억원의 매출을 올린 데 이어 지난 2023년 연간 매출 4800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북미, 동남아, 유럽, 일본 등 140여 개 국가에 진출해 해외 매출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코스알엑스는 해외 매출이 큰 회사”라며 “코스알엑스의 고유 역량을 통해 시너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업 전반에 걸쳐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와 협업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덧붙였다.

LG생활건강도 해외 시장에서의 사업 기회를 확장하기 위해 브랜드 인수에 나섰다. LG생건은 지난 2023년 9월 색조 브랜드 ‘힌스’를 보유한 비바웨이브의 지분 75%를 425억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22년 기준, 힌스의 매출액은 218억원이며 매출 비중은 국내 50%, 해외 50%다. 특히 힌스는 세계 3위 규모의 일본 화장품 시장에서 인지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LG생활건강은 지난 2020년 에도 글로벌 제약사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피지오겔’의 아시아 및 북미 사업권을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피지오겔은 독일에서 시작된 더마 화장품 브랜드로 아시아와 유럽, 남미에서 인지도를 보유하고 있다.

또 더마 화장품 브랜드 ‘CNP’의 경우도 LG생활건강이 인수함으로써 글로벌 더마 화장품 시장에서 입지를 넓힌 사례다. LG생활건강은 해외 시장 다변화뿐만 아니라 색조 화장품, 더마 화장품 등 제품군 확장에도 주력해 실적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 하기자 mlee236@metroseoul.co.kr



6일 서울 종로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3차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본위원회회에서 노사정 선언문 서명식을 마치고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대표자들과 위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일-생활 균형·계속고용 등 인구변화 대응, 해법 찾는다

노동자와 사용자 대표, 정부가 근로 시간과 계속고용 등 지속 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를 시작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제13차 본위원회를 개최하고 사회적 대화 의제와 논의방식,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등 5개 안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경사노위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한 이후 10차례 노사정 부대표자회의를 열어 이날 의결한 안건을 논의해왔다.

경사노위, 13차 본회의 개최
지속가능한 일자리 특별위원회 등
3개 위원회 구성, 이달 말께 논의

노사정이 논의하기로 합의한 의제에 대해서는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2개 등 총 3개 위원회를 구성해 협의하게 된다. 경사노위는 의제별 위원회 구성에 속도를 내 이르면 이달 말쯤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산업전환과 불공정 격차 해소, 유연안정성 및 노동시장 활력 제고, 대화와 타협의 노사관계를 의제로 논의에 착수한다.

‘일·생활균형위원회’는 장시간 근로 해소를 위한 근로시간 단축 및 유연성, 건강권 보호,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논의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

위원회’는 정년연장 방안에 따른 임금 체계 개편, 중고령층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방안, 청년·고령자 상생 고용 방안 마련에 머리를 맞댄다.

다만, 사회적 대화 의제 대부분이 노사간 이견이 큰 사안으로 최종 합의까지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근로시간의 경우 경영계 측은 경직적인 현행 제도가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근로시간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노동시간 유연화가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 건강을 위협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경영계 입장에 가깝다. 정부는 지난해 주 최대 69시간 제도 개선을 추진했으나 불발되자 현행 주52시간제도를 유지하되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유연화를 추진하는 내용의 ‘근로시간 개편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체적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인구구조 고령화에 따른 계속고용 방안도 노사 입장차가 뚜렷하다. 노사 양측은 저출산과 고령사회 강화로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지만, 그 방식을 정년 연장이나 폐지로 할지 재고용 방식으로 할지에 대한 의견이 엇갈린다.

노동계는 안정적인 고용을 위해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기업 부담을 이유로 임금체계 개편과 퇴직 후 재고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환경부, 전기차 보조금 최대 100만원 삭감

국비 전액지원 차량 범위도 축소
중·대형 최대 500만원→400만원

충전속도 빠른 차 사면 최대 30만원
1회충전 주행거리 보조금 차등강화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성능보조금이 올해 100만 원 삭감된다.

중·대형 전기차의 경우, 기존 최대 500만 원에서 최대 400만 원으로 성능보조금 액수가 내려간다. 경·소형은 최대 400만 원에서 최대 300만원으로, 초소형은 정액 350만 원에서 정액 250만 원으로 바뀐다. 또 국비가 전액 지원되는 차량 범위가 축소된다.

환경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전기차 구매보조금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성능보조금은 삭감하는 반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따른 보조금 차등은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중·대형 차량은 1회 충전 주행 거리에 따른 차등 구간을 기존 450km에

전기차 보조금 주요 개편안		
	2023년	2024년 (개편안)
 전기승용 성능보조금	중·대형 최대 500만원	→ 최대 400만원
	소형 400만원	→ 경·소형 최대 300만원
	초소형 350만원 정액	→ 250만원 정액
 전기버스 배터리안전보조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300만원 지원	→ 배터리안전보조금 증액 300만원→1천만원
		→ 지급요건 강화 지급요건: 국내 공인안전시험 통과 차량 중, 국제표준 차량정보수집장치를 설치하고 충전기(커넥터 또는 무선통신)를 통해 배터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차량으로 한정
 전기화물 성능보조금	소형 최대 1200만원	→ 최대 1100만원
	경형 900만원 정액	→ 최대 800만원
	초소형 550만원 정액	→ 400만원 정액

자료: 환경부

/뉴스1 그래픽

서 500km까지 확대하고, 주행거리 400km 미만 차량 지원은 대폭 축소한다. 충전속도가 빠른 차량을 구매할 시 최대 30만 원의 혜택을 제공한다. 또 차량정보수집장치(OBDⅡ) 탑재차량 구매 시 배터리안전보조금 20만 원을 지원한다.

올해엔 특히 국비 보조금이 전액 지원(최대 650만 원)되는 차량 범위가 축소된다.

기존 차량가격 5700만 원 미만이 기준이었으나 올해는 5500만 원 미만이어야 전액 지원 받을 수 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가 핵심기술 유출 벌금 최대 65억

산업부, 작년 핵심기술 23건 유출

최근 반도체 등 첨단기술의 해외 유출이 급증하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불법 유출 범죄에 대해 최대 65억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23건이 해외 기업으로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핵심기술 유출은 2019년 14건에서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해는 최근 5년간 최대를 기록했다.

기술유출 수법은 더욱 지능화·다양화하는 추세다. 산업부 관계자는 “외국 기업이 국내에 기업을 설립한 후 기술 인력을 고용해 기술을 취득하거나, 외국인이 국내기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국내기업의 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사례가 많다”고 설명했다.

중국 기업인 하이디스는 2004년~2009년 중 디스플레이 기술을 해외로 유출했다. 2021년 DDI기술 세계 2위 국내 반도체기업인 매그나칩의 미국 모회사를 중국계 사모펀드가 미국 현지에서 인수해 기술유출 의혹을 받았다. 다행히 당시 미국 정부가 외국인투자심사를 실시하자 인수시도가 철회되기도 했다.

우리 정부는 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해 처벌과 관리, 심사 등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우선 해외유출범죄 벌금을 기존 15억원 이하에서 산업기술의 경우 30억원 이하로,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최대 65억원까지 상향한다.

/세종=한용수 기자

대통령실 ‘재검토’ 제안에… 이복현, 거래 금지→전향적 전환

〈금융감독원장〉

비트코인 현물ETF 재개되나

금감원장 “美 SEC위원장과 협의
가상자산 이슈 등 눈높이 맞춰야
상반기 중 뉴욕 방문 韓시장 설명”
1단계 법 승인 이후 연내 기대감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거래에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했던 금융당국이 현물 ETF에 대해 눈높이를 맞추길 요가 있다고 밝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현물 ETF 승인 이후 대통령실에서 재검토 의사를 피력한 것이 금융당국의 기조를 바꾼 것으로 해석된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전날 열린 ‘2024년도 금감원 업무계획’에서 국내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 승인에 대해 긍정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비트코인 현물 ETF 등과 관련해 거래 컨슬러 미국 중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2024년도 금융감독원 업무계획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 등과 협의 하겠다”며 “가상자산 이슈, 비트코인 현물 ETF 등 눈높이를 맞춰야 될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래는 이달 중 가려 했으나 상반기 중에라도 뉴욕을 방문해 한국 시장의 노력을 설명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SEC 정책이 전 세계에 미

치는 영향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 SEC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 상장을 신청한 11개 비트코인 현물 ETF 상장을 승인했다.

승인 이후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가 거래되고 있었기 때문에 증권사

들은 상품 출시 공지를 띄웠지만, 금융당국의 거래불가 조치로 국내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는 금지됐다.

금융당국 입장은 해외에 상장된 비트코인 현물 ETF를 국내 금융사가 중개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배 소지가 있다는 판단으로, 보도자료를 두 차례 연속 배포하면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처럼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았던 금융당국이 전향적으로 선회한 원인으로 대통령실이 지목되고 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8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 허용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에서 ‘이것을 한다, 안 한다’라는 특정한 방향성을 갖지 말도록 한 상태”라며 “투자자산적 요소가 있으면서도 다른 금융상품이나 실물 경기에 부작용이나 위험요인이 안되면서 할 수 있을 지에 대해 조금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의 거래 불가 방침에 대해 원점 재검토를 제안한 셈이다.

가상자산 시장 육성은 윤석열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도 부정적인 입장을 비꾼 것으로 해석된다.

시장에서는 이 금감원장이 빠르면 오는 5월 거래 컨슬러 SEC 위원장과 만남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미국에 이어 홍콩 역시 아시아 최초 비트코인 현물 ETF를 곧 승인할 것으로 보여 국내에서도 오는 7월 1단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이후 논의를 거쳐 올해 안으로 승인 될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태다.

금융권 관계자는 “대통령실 발언 이후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현물 ETF에 대한 검토를 다시 들어갔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 때문에 총선과 1단계 법 이후 승인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metroseoul.co.kr

“기업 합병때 이유·진행시점 등 시장에 공시해야”

금융위, M&A 정합성 제고방안
외평기관, 합병가액 산정 참여 못해
품질관리규정 마련, 평가에 포함해야

“기업의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사진)은 6일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



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합병의 이유와 합병 상대방 선정이유, 합병 진행시점 등 주요 의사 결정사유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경우 외부평가는 의무화돼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태다.

앞으로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참여한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을 할 수 없다.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

병가액에 적정성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외부평가기관은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의견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이 합병결정보다 먼저 공시될 경우,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공시 이후 공시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3분기 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 기자 yul115@

» 1면 ‘내년 의대정원 2000명’서 계속

대한전공의협의회 설문

의대증원 단체행동에
“참여” 응답자 88.2%

이어 “정부가 2020년 9·4 의정 합의 위반하고 의료계와 소통없이 일방적으로 강행할 경우 집행부는 총사퇴할 것”이라면서 “일선 의료현장에서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설 연휴가 끝나면 비대위 구성에 들어가 본격적인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지난 5일 전국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의대증원에 따른 단체행동에 88.2%의 응답자가 “참여하겠다”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이세경 기자 seilee@

포항시의회

포항시민의 곁에는 언제나
포항시의회가 함께합니다

소통과 참여의 의정활동을 위해 시민여러분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포항시의회 홈페이지 및 SNS

council.pohang.go.kr

pohangcitycouncil

“정부 지나친 개입, 기업 자율성 침해… 시장 혼란 가중” 지적

통신비 인하 빛과 그림자

이통3사, 공시지원금 확대

SKT, 5G 지원금 48만9000원 상향
KT, 월 13만원 요금제 48만원 확대
LGU+, 지난 인상 이어 한번 더 단행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압박으로 이동통신사들이 저가 요금제 출시는 물론 공시지원금까지 2배 가량 올렸다. 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개입이 시장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시지원금을 높여도 통신비 인하를 체감하기 어려운 것은 물론, 통신산업 수익성과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또한 하락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표심 얻기 위한 정책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통신3사는 이날 ‘갤럭시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50만원으로 인상했다. 통신3사별 공시지원금은 SK텔레콤 25만~48만9000원, KT 16만5000~48만원, LG유플러스 23만4000~50만원이다.

앞서 이통 3사는 갤럭시S24 사전 예약이 끝난 직후 최대 20만원 초반대의 공시지원금을 예고했다. 하지만 지난 2일 LG유플러스가 최대 45만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그러자 뒤이어 SKT, KT도 공시지원금 확대에 나섰다.

SKT는 5세대 이동통신(5G) 기준 20



갤럭시 S24 시리즈.

/뉴시스

만원 수준이던 최대 공시지원금을 48만9000원까지 늘렸고, KT 역시 월 13만원짜리 ‘5G 초이스 프리미엄’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을 기존 24만원에서 48만원으로 확대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일 공시지원금을 확대한 데 이어 또 한 번의 인상을 단행했다. 1차 인상 당시 45만원 수준이었던 월 13만원짜리 ‘5G 시그니처’ 요금제의 공시지원금은 6일 기준 50만원이다. 여기에 대리점에서 추가로 제공 가능한 합법 보조금(공시 지원금의 15%)까지 고려하면 최대 57만5000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지원금 인상을 두고 정부의 정책적 압박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윤 대통령이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 3사 임원을 소환해 지원금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단통법 폐지부터 현실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통법 폐지는 정부가 시장가격에 개입하는 대신 업체 간 경쟁을 촉발시켜 소비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법이다.

문제는 단통법 폐지가 시행되기 어렵다는 점이다. 국회 입법 사항이라 21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4월 총선 후 22대 국회로 논의가 넘어가게 된다.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가 첨예한 만큼 언제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보여주기식 정책으로 변질될 것을 우려

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단통법이 폐지될 경우 통신사 간의 보조금 경쟁이 다시 불붙어 소비자 부담이 지금보다 쉰 가격에 휴대전화를 살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최상위 기종 단말기 가격이 200만원을 넘어서고, 가계의 월평균 통신비 지출액이 13만원을 초과한 상황에서 적지 않은 혜택이 예상된다.

또한 현재까지는 공시지원금을 높여도 선택약정이 더 유리하다는 점도 문제다. 50만원이 넘는 공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12만~13만원 수준의 고가 요금제를 택해야 하는데, 이 경우 요금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 할인폭이 높다. SK텔레콤의 경우 최대 공시지원금이 56만2300원이지만, 요금할인은 75만1080원 받을 수 있다. KT와 LG유플러스의 최대 공시지원금은 각각 55만2000원, 57만5000원이지만 선택약정으로는 78만원 할인이 가능하다.

이밖에도 단통법이 폐지되면 알뜰폰 업계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된다. 이통사의 보조금 경쟁이 과열되면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부족한 알뜰폰 사업자들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하기 때문이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오히려 생태계를 해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가 가계통신비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알뜰폰 시장의 활성화를 내세운 만큼, 관련 보완책도 세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 1면 ‘저가폰 늘리는 제조사’서 계속

방통위, 애플도 찾아 보조금 상향 기대감

삼성전자가 방통위 요구를 수용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 시장에서는 보급형 판매량이 많지 않은데다가, 브랜드 이미지를 훼손하는 주요 요인으로 꼽히면서 오히려 축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M시리즈는 국내에서는 사용하기 어려울 만큼 성능이 낮은 편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만큼 국내에서만 단말기를 저렴하게 팔 수도 없다.

일각에서는 통신 요금 부담을 줄여야 하는 명분이 없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GDP 등 여러 상황을 감안하면 국내 통신 요금이 비싸다고 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방통위도 통신 요금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보는 것은 아니라며, 국민 부담을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조치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 제조사를 대상으로 부담 경감 요청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방통위는 지난해에 이어 이날 오후에도 애플코리아 임원을 만나 지원금 상향을 요청했다. 애플은 지난해 삼성전자와 함께 방통위를 만나 부담 경감 요청을 받았지만 그동안 그렇다할 조치를 하지 않아왔다. 삼성전자 갤럭시S24가 출시 직후 보조금을 상향하게 된 만큼, 애플도 동참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재웅 기자 juk@

“SW 불법복제 제보·접수 연간 1000여건”

여전히 횡행, 지난해 피해액 1000억
일반 사무용SW 273건 가장 많아
업종별, 제조·화학업종 전체 27%

IT업계의 골칫덩이 불법복제가 여전히 횡행하며 지난해 피해액이 10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 2020년 불법복제 SW의 유통통로로 지목돼 철폐를 맞았던 중국 오픈마켓이 여전히 유통통로로 활약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6일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가 불법복제 SW제보서비스 ‘엔젤(Angel)’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지난해 대비 19% 정도 접수 건수가 줄어들면서 2021년부터 2년 연속 감소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SW저작권 침해 피해금액은 전체 109억여 원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123%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제보·접수된 전체 956건의 불법복제 프로그램은 일반 사무용SW가 273건(29%)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설계용 SW 242건(25%), 운영체제 187건(20%), 그래픽 SW 130건(14%), 기타SW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화학업종이 전체의 27%인 139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정보통신 73건(14%), 기계·전자 32건(6%), 건설·교통 98건(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협회는 제조·화학업종에서 불법복제

이용이 다수 확인된 이유로 ▲경기침체 및 인력부족으로 인한 SW 저작권 관리 및 점검 여력 부족 ▲SW 개발사 라이선스 판매 방식의 변화(영구 판매에서 최근 구독 형태로 전환 추세) 등으로 분석했다.

유명한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회장은 “저작권사, 개발사 등의 노력과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식도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열악한 환경에 있는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 등을 중심으로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협회 발표는 개인이 아닌 기관·기업에 대한 불법복제 SW 사용만을 집계하고 있어 실제 국내에서 개인이 PC에 설치해 사용하는 사례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공기관과 기업의 경우 강도 높은 단속과 개발사의 보안 강화 등 노력으로 매년 단속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개인의 이용은 집계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국은 지난 1990년대 말 SW/OS 저작권 개념은 제대로 인식되지 않은 채 인터넷이 전래없이 빠른 속도로 보급됐다.

이에 사무용소프트웨어연합(BSA)가 조사한 한국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현황은 2000년 56%, 피해액은 5400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전세계 불법 복제율 평균은 38%, 미국 평균은 20%였다. 2000년대까지 SW/OS는 물론 음악과

영화 등 다양한 문화콘텐츠까지 저작권 침해 대상이 되자 소송이 이어지며 국내서 저작권 인식이 점차 자리잡았다.

전문가들은 그럼에도 계속 불법복제 SW 이용이 계속 되는 이유를 기업과 개인의 갈등이라는 인식으로 지목하고, 적발의 어려움 또한 말한다. IT 업계 관계자 A씨는 “열심히 만든 게임이 과거 웹하드에서 발견돼 너무나 허탈했다”며 “사실을 게임 커뮤니티에 호소하자 오히려 유저가 즐겁게 즐기는 게 개발자의 기쁨이라며 다운로드 수가 늘었다”며 경험을 전했다. 그는 “신고를 해도 A에서는 삭제되고 B에서 다시 나타나는 등 나와 작은 중소기업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국내 불법복제 SW 유통 통로를 적발하면 해당 통로가 새로운 곳으로 이동하는 데다 점점 더 은밀해지고 있다. 과거 CD와 웹사이트에서 토렌트, 웹하드 등으로 이동했던 불법복제 SW 유통 경로는 현재 일반적인 오픈마켓에 이르렀다.

지난 2019년 대법원은 오픈마켓을 통한 불법복제 SW 판매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를 기점으로 국내 오픈마켓에서의 유통이 급속도로 줄었다. 그러나 곧이어 알리익스프레스로 이동한 불법복제 SW 유통은 현재 중국 최대 쇼핑몰 타오바오에 횡행하고 있다.

/김서현 기자 seoh@

미국반도체협회 “올 두자릿수 성장 전망”

“무역 장벽 완화 돼야”

미국 반도체 업계도 올해 대대적인 회복세를 기대했다. 무역 장벽 완화 바람도 숨기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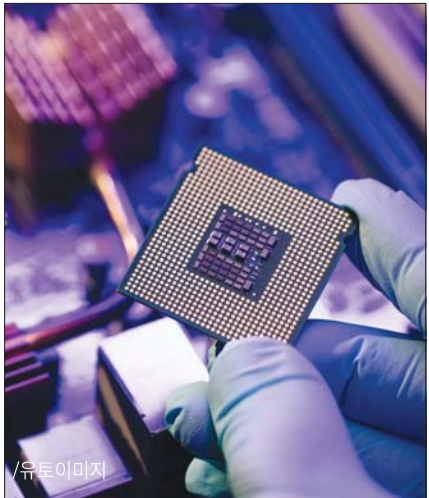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는 지난해 전세계 반도체 산업 매출이 5268억 달러였다고 5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전년(5741억) 대비 8.2% 줄었다.

대신 하반기에는 매출이 증가했다며 반등을 확인했다. 4분기만 보면 1460억 달러 매출로 전년 동기 대비 11.6%, 전 분기보다도 8.4%나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12월 역시 전달보다 1.5% 많다고 덧붙였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매출로 유럽이 유일하게 4% 성장, 일본(-3.1%)과 미주(-5.2%),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태평양 및 기타(-10.1%) 등이 큰 폭으로 역성장했다. 특히 중국은 -14%로 가장 하락폭이 컸다.

반대로 12월만 보면 중국이 전달 대비 4.7%, 미주가 1.8% 성장했다. 아시아 태평양 및 기타 지역도 0.3% 확대했다. 일본(-2.4%)과 유럽(-3.9%)은 줄었다.

제품별로는 로직이 1785억 달러로 가장 규모가 컸고, 메모리는 923억 달러로 뒤를 이었다. 자동차 IC가 23.7% 증가한 422억 달러, 마이크로컨트롤러 유닛(MCU)도 11.4% 성장한 279억 달러를 기록했다.



/유투이미지

SIA는 올해에는 두자릿수 이상 성장을 전망했다. 반도체 역할이 확대되면서 장기적으로도 성장을 내다봤다.

존 노이퍼 SIA 사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글로벌 반도체 판매는 2023년 초반 부진했으나 하반기에 강하게 반등했다”며 “R&D에 투자하고, 반도체 인력을 강화하고, 무역 장벽을 낮추는 정부 정책을 발전시키면 반도체 산업이 앞으로 수년 동안 계속 성장하고 혁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제반도체재료장비협회(SEMI)도 최근 세미콘2024에서 올해 반도체 산업 투자 및 성장률 전망을 예상한 바 있다. 2029년까지 반도체 산업 매출이 연평균 9% 성장하며 2030년에는 1조 달러 달성도 기대했다.

/김재웅 기자 juk@



건강한 지구를 위한 첨단 기술의 노력

SK하이닉스가 앞장서겠습니다

친환경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SCC* 멤버 가입
유해물질 관리 역량을 인정하는 IECQ QC 080000* 인증 획득
탄소배출 저감 제품군에 수여하는 탄소발자국 인증 획득
반도체 폐기를 감축을 실현하는 SSD 재활용 활동
멸종 위기 생물 보호를 위한 생물다양성 경영 개치

*SCC (Semiconductor Climate Consortium) : 반도체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결성된 글로벌 협의체
 *ECO QC 080000 : 국제전기기술위원회에 의해 발효된 유해물질 관리 국제표준

與 “서병수·김태호 ‘낙동강 벨트’ 출마 요청”… 희생론 재점화

장동혁 “서병수, 부산 북·강서갑 김태호 경남 양산을 탈환 부탁드려 낙동강 벨트 사수, 총선서 큰 의미”

보수텃밭 PK, 이번에는 쉽지 않아서 의원, 요청 수락·김 의원은 아직

4·10 총선이 두달 여 앞으로 다가온 6일 국민의힘은 서병수 의원(5선·부산 부산진갑)과 김태호 의원(3선·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게 ‘낙동강 벨트’ 탈환을 요구했다. 이로 인해 지도부 체제의 변화로 사그라들었던 ‘영남권 중진 희생론’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인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부산의 서병수 의원에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있는 부산 북·강서갑으로 출마해주시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김태호 의원께서는 민주당 김두관 의원이 있는 경남 양산을 지역에 출마를 부탁드려놓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장 사무총장은 “우리 당으로서는 꼭 이겨야 하는 전략지역들이 있다”며 “정치신인을 내보내서는 이기기 힘든 지역들이 있기 때문에, 중진들이 경쟁력 있는 후보가 없으면 이기기 힘든 지역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로 가셔서 희생해주신다면 그것이 선거에서 또 하나의 바람이 될 수 있고, 선거 승리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경남·부산에서 낙동강 벨트가 가장 중요하고, 경남에서 낙동강 벨트 사수한다면 이번 총선에서 큰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두 분께 당을 위해서 어려운 지역을 출마해주시는 부탁을 드려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양지’로 분류되는 지역구는 정치신인들에게 물려주고, 경

쟁력 있는 후보를 내기 힘든 함지에서 도전해달라는 의미다. 현재 부산 부산진갑에는 해양수산부 차관을 지낸 박성훈 전 대통령실 국정기획비서관이, 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에는 신성범 전 의원이 공천을 신청한 상태다.

장 사무총장은 “두 분 정도면 당을 위해서 충분히 헌신해 주실 것이라 생각한다”며 “물론 해당 의원들께서 선택할 문제지만, 영남지역에서는 낙동강 벨트가 저희에게 어렵고 중요한 지역이기 때문에 두 분께서 큰 결단을 해 주실 것

을 기대한다”고 했다.

또 현재 PK(부산·경남) 민심이 심상치 않다는 점도 이같은 요청이 나온 배경으로 보인다. PK는 전통적인 보수 텃밭으로 불리지만, 반드시 보수계열 정당 후보만 당선된 것은 아니다. 지난 2016년 20대 총선에선 부산 전체 18석 중 5석을 민주당이 차지하기도 했다. 경남도 양산과 김해는 민주당 후보들이 당선되기도 한다.

거기에도 세계박람회 부산유치 실패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등으로 PK 표심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여당의 판단이다. 그리고 서병수·김태호 의원에게 출마를 요청한 지역은 민주당 현역 의원들이 버티고 있기에, 이 두 의원이 승리할 경우 전체 선거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본 셈이다.

서병수 의원은 당의 요청을 받아들일 것으로 전해진다. 입장 발표는 7일에 할 것으로 보인다. 김태호 의원은 아직 고심 중이라고 한다.

이런 가운데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당내 의원들에게 다시 한 번 헌신을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도 불출마하지 않았다. 우리 당이

국민을 위해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선 선민후사와 헌신이 필요하다”며 “정말 치열한 승부의 장에 많은 실력 있는 분들, 중량감 있는 분들기 나가주시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밝혔다.

일각에선 지도부의 중진 차출과 ‘헌신’ 요구로 인해, 다시 한 번 ‘영남권 중진 희생론’이 떠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날 “추가로 어떤 분들에게 당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부탁을 드릴지는 고민해볼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인요한 혁신위’가 ‘진윤·중진 희생론’을 제시했을 당시에는 장제원 의원만 불출마 선언을 했다. 또 하태경 의원의 경우 부산 해운대갑을 떠나 서울 중·성동을 출마를 선언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진들은 기존 지역구를 지켰다. 거기다 대통령실·정부 인사들의 ‘양지 출마 논란’도 있어, 중진들이 불만을 표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게다가 당 공천관리위원회가 ‘동일 지역구 3선 이상 15% 페널티 부여’를 공천룰로 정한 상태라, ‘공천룰’과 ‘희생론’이 맞물리며 더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다. /서연진 기자 syj@metroseoul.co.kr

野 “통합형 비례정당, 의총서 만장일치… 4년 전과 달라”

제3정당·주요 정당 함께하는 방향 비례대표 순번, 공정·투명하게 결정 與, 갑작스러운 선거구 확정 논의 중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고 비례대표용 정당을 창당해 소수정당 및 시민사회 세력에 더 많은 몫을 배정하는 ‘통합형 비례정당’ 구상에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지도부의 결정에 대해 만장일치로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며 “22대 총선에서 현재의 제도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바탕으로 통합비례정당을 빠른 시일 안에 만들어서 윤석열 정부 심판을 함께하는 모든 정치단체와 뜻을 함께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홍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의 결정이 전날(5일) 나왔으며 창당 시기, 후보 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청래 최고위원 등 참석 의원들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증 방식, 소수정당·시민사회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다. 하지만 홍 원내대표는 “4년 전에 민주당이 했던 위성정당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다”면서 “그때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정당이 빠진 상태이

지만 지금은 제3정당과 주요 정당이 합

계하는 방향으로 통합비례정당을 하나

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이 비례대표 당선용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하자, 이어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당시 민주당은 비례대표 명부에 용혜인 기본소득당

(현 진보연합)과 조정훈 시대전환(현 국민의힘) 의원을 당선권에 배치시켜 21대 국회의원으로 입성시킨 바 있다.

홍 원내대표는 비례대표 순번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해선 앞으로 협의해 가면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결정해나가겠다”며 “비례대표도 국민이 선택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공개하면서 지혜를 모아야 할 예정”이라고 했다.

같이 할 수 있는 세력의 최소한의 기준이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선 “시민사회 측과 논의도 있었고 제안도 있고 해서 이를 바탕으로 추후 논의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위성정당 창당 반대를 주장한 의원들의 반대 발언이 없었느냐는 질문엔 “당내 이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영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야당 측 간사는 선거구 획정을 위한 여당과의 논의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전했다. 김 간사는 기자들과 만나 “선거구 획정은 국민의힘 측에서 갑자기 모든 협상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고 여당 측 간사가 연락을 줬다”며 “당황스러운 상황이고, 정부여당이 야당과 거꾸로 협상 중단을 통보해오는 상태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아마 우리 당 대표께서 어제 준연동형 제도로 (총선을) 치르겠다고는 것에 대해 당황해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며 “반응이 거칠게 와서 무척 당황스럽고 하루라도 빨리 선거구 확정 협상을 마무리 짓고 선거에 돌입하도록 만들어 드릴 책임이 있는데 죄송하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의대정원 확대안에 대해 민주당도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전해졌다. 최해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부 의의대정원안이 발표됐는데, 지역의사제도, 지역 의대 신설과 관련한 종합병원 설치이야기가 빠져 있다. 당에서 추진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尹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

직접 점검회의 주재·이행 상황 챙겨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부터 시작한 민생토론회를 통해 제안된 다양한 정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주길 바란다”고 지시하며 직접 점검회의를 통해 챙기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7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연초부터 시작된 민생토론회를 통해서 책상과 현실의 차이가 얼마나 다른지 국무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노후 아파트 재건축 문제와 수도권 교통 문제를 언급하며 “무엇보다,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폐지 및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 제도 폐지 등도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하위법령을 개정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해 신속하게 바꿀 수 있다”고 했다.

또, 웹툰과 웹소설을 도서정가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출판문화산업진흥법 개정’, 게임사의 확률 조작 등 기망행위로부터 소비자피해를 보호할 집단적 피해 구제 입법 등에 대해서는 “각 부처는 할 수 있는 일부터 즉시 찾아서 실행하고, 입법 추진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새로 시행되는 정책들에 대해서는 국무위원들이 직접 현장을 찾아보고 소통하며 문제점을 파악하고 신속하게 개선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과제들을 모아 직접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이행 상황도 챙기겠다”고 밝혔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

野 공관위, 1차 공천심사 결과 발표

2차 발표, 설 연휴 이후 예정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공관위)가 6일 총선에서 후보간 경선을 하는 23곳과 단수 공천 받은 13곳을 발표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 2층 당원실에서 1차 중앙당 공천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을 거치는 곳은 ▲서울 서대문구를 김영호·문석진, 송파구를 박지현·송기호·홍성룡, 송파구병 남민순·박성수 ▲부산 금정구 김경지·박인영 ▲인천

연수구를 고남석·정일영, 남동구갑 고준수·맹성규 ▲광주 북구갑 조오섭·정준호, 북구를 이형석·전진숙, 동구남구갑 윤영덕·정진욱 예비후보 등으로 총 23곳이다.

단수 공천을 받은 곳은 ▲부산 서구 동구 최형욱, 진구를 이현, 북구강서구를 변성완, 해운대갑 홍순현 ▲대구 달서구를 김성태, 달성군 박형룡 예비후보 등으로 총 13곳이다.

공관위의 2차 발표는 설 연휴 이후로 예정될 전망이다. /박태홍 기자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진짜 하나뿐인 내 편 맞네!”

소상공인과 함께 올고 웃으며
늘 곁에 있는 **하나금융그룹**이 되겠습니다

서울시 상도동 '시장떡방앗간' 윤세권 사장님

소상공인의 하나뿐인 내 편

소상공인분들께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키오스크, AI CCTV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

사업명: 고효율, 디지털 기기 지원 사업

신청기간: 2024년 1월 22일(월) ~ 2월 23일(금)

신청방법: 하나 파워온 공식 홈페이지 <https://www.hanapoweron.com>

신청하러 가기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 하나자산신탁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인구감소 시대, 보험업계 성장한계 위기

고령자·다자녀 등 특약으로 돌파

급격한 인구변화에 가망고객 감소
허창언 원장 “적극 대응해야 할 때”

KDB생명, 고령층 위한 종신보험
현대해상, 다자녀우대 車보험 할인
한화손보, 임신 등 여성 위한 상품

주요 보험사가 저출산·고령화를 겨냥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상생금융은 물론 저출산·고령화를 극복 하자는 의미다. 기존 특약 개정과 새로운 상품 출시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는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망고객(예상보험가입고객)이 줄어들고 보험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보험업계의 대응 촉구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1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북한보다 ‘저출산’일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이슈다”라며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상품 측면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체계를 갖추고 있다.

KDB생명은 초고령 사회 대응에 나섰다. ‘(무)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을 지난 1일 출시하고 고령층과 유병자 등 보험 소외 계층의 보장을 강화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내 보험 시장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력자 및 고령자에게도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



저출산 여파로 올해 서울 초등학교 취학 예정자가 전년 대비 10.3% 감소했다. 지난 2023년 폐교된 서울 광진구 서울화양초등학교. /뉴시스

는 취지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령화 이슈를 반영한 보험 본연의 역할과 상생의 의미를 실린 상품”이라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재무건전성 관리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판매 및 인수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다자녀 우대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제공해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설했다.

해당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계약 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포인트(p) 추가 할인으로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임신, 출산 등 여성의 건강과 연계해 보장영역을 개척하

고 저출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의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는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여성의 건강에 기초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을 위해 업계 최초로 ‘난소 기능검사(Anti-mullerian hormone)’와 ‘난자동결기술 우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생명과학 연구재단과 ‘저출산 극복 및 난임의학 발전을 위한 기부협약’을 맺은 바 있다. 난임 예방과 치료, 출산력 회복 등 여성건강 관련 분야의 의학 기술력 증진을 도모해 저출산 위기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차별화된 ‘레이디(Lady)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서울 아파트 전세매물 3.9% 감소... 전세대란 오나

사기여파 아파트로 전세 수요 이동
전셋값 0.06% 올라 37주 연속 상승

비아파트를 중심으로 역전세, 전세 사기, 강통전세 등 ‘전세 리스크’가 지속되면서 서울 지역에선 아파트 전세 풀림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 수요 증가로 전셋값이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아파트 입주 물량이 크게 줄면서 ‘전세난’이 심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6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이달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는 1만2378건으로 전달(1만1616건) 대비 6.6%(762건) 늘었다.

서울 아파트 전월세 거래는 2022년 12월 2만4056건을 기록했다. 전세 비중은 47.7%(1만1469건)로 월세 거래가 더 많았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전세 비중이 11.5%포인트 오른 59.2%로 집계되면서 전세 거래가 절반을 넘어섰다.

업계에서는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단독다가구, 연립다세대)에 대한 전

세 기피 현상이 계속되면서 상대적으로 안전한 아파트로 전세 수요가 이동한 것으로 보고 있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비아파트는 2022년 대비 2023년 들어 월세 비중이 늘어난 반면 아파트는 소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역전세, 강통전세 우려가 상대적으로 덜한 아파트에서 전세수요가 이어진 가운데, 비아파트에서는 보증금 미비한 우려로 월세 선호가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아파트 전세 수요가 몰리면서 매물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 물량(이달 기준)은 3만4138건으로, 전달 매물량(3만5526건)과 비교하면 3.9%(1388건) 감소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5만2179건) 대비 34.6%(1만8041건) 감소했다.

전세 수요 증가로 전세매물의 품귀 현상이 이어지면서 전셋값은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월 다섯째

주(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06% 오르며 37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노원구 상계동에 위치한 ‘상계대림’은 이달 전용면적 84㎡가 3억8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지난달(3억6000만원) 대비 2000만원 올랐다. 영등포구 대림동에 위치한 ‘현대1’의 경우 지난달 전용면적 84㎡가 4억5000만원에 전세로 거래됐다. 전달(4억3000만원)과 비교하면 2000만원 올랐다.

시장에선 입주물량 감소가 전세시장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1만1000여 가구로, 지난해(3만2000여 가구)보다 2만1000가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부동산R114가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지난 2000년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전셋값 상승이 계속될 경우 차라리 집을 구매하는 수요자가 늘어 매매가격이 오를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김대환 기자 kdh@

부담스러운 납입기간·금액 청년도약계좌 여전히 ‘외면’

지난달 가입 신청자 37.9만명
연계가입 허용에도 목표치 미달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과 비과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아쉬운 1월 성적표를 받았다. 월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 긴 가입 기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명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하면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연계가입 추진 당시 전망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대 6%의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때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출범 당시 목표로 306만명의 가입자를 제시했다. 출시 직후인 6월에는 76만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지만, 과도한 납입액 및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신청이 줄어 12월까지 총 137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51만명이 최종 가입하는 데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난월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37만9000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7만2000명이 연계가입 신청자였다.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16일 마감한다. 마감 이후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기일이 1~3월에 집중된 만큼 연계가입자는 추진 당시 목표치인 143만6000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꺼리는 청년

들은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부액과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월 납부액이 부담스럽고, 이직 및 실업, 주거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도 어렵다는 것.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경제상황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달 4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로 매달 161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은 180만원에 수준이었다.

이어 직장별 평균 근무 기간은 31.6개월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근무 기간 비중도 32.7%에 달해 소득 불안정성도 높았다.

각 은행은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7%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를 늘리고,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적금 상품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도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청년도약계좌 장기간 유지 시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公示해 가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미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NH농협은행 이동점포 ‘NH 윙즈(wings)’.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설 귀성길 이동점포 운영

성남유통센터·하남드림휴게소
8~9일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

NH농협은행은 설명절을 맞아 귀성하는 고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해 이동점포를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농협은행은 오는 8일~9일 농협 성남유통센터와 중부고속도로 하남드림휴게소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동점포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협은행 이동점포 차량인 ‘NH 윙

즈(Wings)’는 금융단말기와 자동화기기(ATM)가 탑재된 차량으로 장소 제약 없이 찾아가는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 신권 인출 및 교환, 계좌이체 등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 귀성기간에 농협은행 이동점포 ‘NH Wings’에서는 내방객들의 금융편의를 위하여 신권 교환, 세뱃돈 인출, 통장정리, 계좌이체 등의 간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수익성 회복 나선 철강업계… 조선·車업계와 신경전 예고

철강업계, 경기악화로 실적 부진
상반기부터 본격 가격인상 예상
포스코·현대, 열연제품 5만원 ▲

조선업계, 강판가격 인상 부담커
車 업계도 가격 인하 주장 가능성

지난해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로 수익성 악화를 겪은 국내 철강업계가 올해 제품 경쟁력 확보를 통해 수익성 회복에 나선다. 다만 올해 건설 경기 둔화와 원자재값 인상 등 침체된 업황으로 실적 반등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홀딩스는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77조 1270억원, 영업이익 3조5310억원을 올렸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9%, 27.2%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1조8460억원으로 48.2% 줄었다.

현대제철은 지난해 연결기준 실적으로 매출 25조9148억원, 영업이익 8073억원을 달성했다.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전년대비 5.2%, 50.1% 감소했다. 당기순이익은 전년대비 56.7% 줄어든 4496억원을 올렸다.

동국제강도 지난해 영업이익이 786억원으로 전분기 대비 25.5% 감소했다. 같은 기간 매출은 4% 증가한 1조



포스코 포항제철소 직원이 2고로에서 출선하고 있는 모습,.

1226억원이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6월 1일 기준 동국제강(현 동국홀딩스) 인적 분할을 통해 설립한 신설법인이다. '스틸 포 그린'을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삼고 철근·형강·후판 등 열연철강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철강업계의 실적 부진은 시황 악화의 영향이 크다. 국내외 건설 경기 부진과 중국과 일본 등 수입산 철강재 유입으로 생산비용이 늘었지만 제때 가격을 올리지 못한 것이 실적 부진으로 이어진 것으로 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업체들은 국내 건설 경기 둔화가 지속되는 데다 전 세계 철강 수요의 절반을 차지하는 중국 내 건설 경기 침체가 지속될 수 있어 올해 상반기도 상황을 힘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원자재값과 생산비용 증가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업황이 좋아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철강업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상반기부터 가격 인상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포스코는 열연 제품에 대해 1월

계약분부터 톤당 5만원 인상을 결정했고, 2월엔 유통상 열연 제품 가격도 톤당 5만원 인상하기로 했다. 현대제철은 지난달 열연과 함께 후판에 대해서도 톤당 5만원 인상을 통보했고, 2월에도 열연 제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추진할 전망이다. H형강과 일반형강 가격도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

현대제철 관계자는 “자동차업체와 합리적인 가격 수준에서 협상을 이어가고 조선업체와의 후판 협상은 제조원가 인상분을 반영해 적정 수준에서 협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봉형강의 경우 건설 투자 위축으로 인해 상반기까지는 수요가 부진할 수 있지만 하반기부터는 정부 주도의 건설 대응책이 나오는 등 시장 반전 및 시황 호조를 기대한다”고 예상했다.

다만 조선업계는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수주 선박의 건조·인도에 나서며 실적 개선을 예고한 만큼 가격 협상에서 최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다. 또 자동차 업계는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강판 가격 인상에 부담이 크다. 강판 가격 인상에 따라 수익 유지를 위해 자동차 가격을 인상할 경우 판매량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완성차 업계는 철강업계가 최

근 3년 동안 가격을 인상한 만큼 가격 인하를 주장할 가능성도 높다.

이와 함께 철강업계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과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에도 집중할 방침이다.

포스코는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Hyper NO)생산에 집중한다. 광양제철소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공장에선 연간 15만톤을 생산할 수 있으며, 올해는 30만톤으로 생산량을 늘릴 계획이다. 전기차 및 고급가전 시장의 급성장에 맞춰 모터의 에너지 손실을 줄여주는 고효율 무방향성 전기강판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향후 북미 지역에 전기강판 공장 신설을 검토하는 등 고부가가치 제품 판매를 늘릴 예정이다.

현대제철은 신재생에너지 전환 추세에 따라 유럽 해상풍력 신재생프로젝트(PJT) 수주 활동을 강화하고, 신진기로 생산체제 구축을 위한 탄소중립 기술 확보 및 미래모빌리티 시장을 겨냥한 소재기술에 선제 대응한다.

동국제강그룹은 '스틸 포 그린'을 중장기 성장 전략으로 삼고 친환경 전기로 조업을 바탕으로 철근·형강·후판 등 열연철강제품 생산에 집중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로템, 8688억 규모 美 LA전동차 수주 “2030년까지 재활용 소재 30%이상 확대”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사업 낙찰
2028년 올림픽·패럴림픽 수요 대응

현대로템 미국법인이 현지 전동차 공급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

현대로템은 6일 현대미코 미국법인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카운티 교통국에서 발주한 LA 메트로 전동차 공급 사업에 최종낙찰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사업 규모는 약 8688억원(6억 6369만 달러)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93년부터 운용 중인 현지 노후 전동차를 대체하고 2028년에 개최될 LA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급증할 이동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착수됐다. LACMTA는 차량 제작사 선정 시 저품질 차량을 납품하거나 납기를 맞추지 못하는 부정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이행 능력과 실적, 품질, 기술 등 가격 외 평가 항목에 비중을 뒀다.



현대로템이 납품할 미국 LA 메트로 전동차 조감도. /현대로템

현대로템은 차량 제작 기술 및 실적과 납기 준수 등의 사업 이행 능력을 인정받아 경쟁사를 제치고 사업을 따낼

수 있었다. 현대로템은 지난 2005년과 2018년에 같은 북미 지역에서 수주한 캐나다 밴쿠버 무인 전동차 공급 사업에 차량을 조기 납품하는 등 운행 일정을 앞당겨 공로를 인정 받았다.

LA에 투입될 전동차는 2량 1편성으로 최대 6량까지 중련(차량을 연결해 운영하는 방식) 운행이 가능하며 1량당 최대 탑승 정원은 245명이다. 운행 최고속도는 113km/h으로 LA 다운타운~할리우드 북부 구간(26.4km)을 운행하는 B(적색)라인과 LA 다운타운~코리아타운 구간(10.3km)을 운행하는 D(보라색)라인에 투입된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다수의 미국 현지 사업을 수행하며 쌓은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현지 시민들과 관광객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전동차를 납품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SK하이닉스, 중장기 로드맵 수립
구리·주석, 플라스틱 포장재 교체

SK하이닉스가 재활용 소재 활용을 본격화한다.

SK하이닉스는 제품 생산에 재활용 및 재생가능 소재를 적극 활용하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재활용 및 재생가능 소재는 폐기물이나 제품에서 재가공하거나 자연적으로 재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 소재를 의미한다.

SK하이닉스는 로드맵을 통해 생산 제품 중 재활용 소재 비율을 2025년 25%, 2030년 30% 이상 높인다는 계획이다. 우선 SK하이닉스는 필수 소재인 구리와 주석 등 금속 소재를 재활용 소재로 전환하고, 플라스틱 포장재도 재활용 소재로 교체할 계획이다. 특히 금

속 소재는 반도체에서 비중이 크고 다른 소재로 대체하기 어려운 만큼 자원 순환 측면에서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기대된다.

SK하이닉스는 로드맵 달성을 위한 이행 체제도 정비했다. 직접 구매하는 재활용 소재에 대해 인증 절차와 품질 평가를 강화하고, 협력사가 납품하는 부품 소재도 품질 평가서를 제공받아 검토한 후 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ISO 14021 등 공신력 있는 외부기관의 재활용 소재 사용 비율 검증 및 인증에 협력사들도 동참하도록 소통하고 지원도 약속했다.

SK하이닉스는 넷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선제적으로 재활용 소재 비중 확대 목표를 수립했다고 설명했다. /김재웅 기자 juk@

삼성중, 고부가 LNG 운반선 4.6조 찍팟

중동지역 선주와 15척 건조계약

삼성중공업이 고부가가치 선박인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을 대량 수주하며 4조6000억원에 달하는 ‘찍팟’을 터트렸다.

삼성중공업은 중동 지역 선주와 17만 4000㎡급 LNG 운반선 15척에 대한 건조계약을 체결했다고 6일 공시했다. 계약 금액은 총 4조5716억원이다. 이는 삼성중공업의 역대 최대 수주액으로 지난해 7월 메탄올 추진 컨테이너선 16척 계약금액인 3조9593억원을 뛰어넘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을 2028년 10월가

지 선주사에 순차적으로 인도할 예정이다.

삼성중공업은 발주처를 철저히 비공개했지만 업계에서는 카타르의 대규모 LNG 운반선 발주 프로젝트와 관계가 있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번 계약으로 삼성중공업의 올해 누적 수주 실적은 총 17척, 37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83억달러)의 절반에 가까운 규모다. 특히 삼성중공업은 고부가가치 선박인 LNG 운반선 수주 잔고(남은 건조량)가 90여척에 달해 안정적인 실적을 위한 입지를 굳건히 다져나가고 있다. /양성운 기자

퓨처엠 지붕에 태양광 설치… 포스코인터, RE100 대응 속도

광양 양극재 공장서 설비 준공식
연간 2.6GWh 재생에너지 생산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퓨처엠이 손잡고 배터리 소재 사업의 RE100 대응을 위한 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에 나선다.

양사는 6일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공장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붕 태양광 설비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포스코인터내셔널과 포스코

퓨처엠이 재생에너지 생산과 사용 확대를 시도하는 첫번째 협력 프로젝트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포스코퓨처엠 광양 양극재 공장 지붕에 2.2MW 규모의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 연간 2.6GWh의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이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확보한다. 포스코퓨처엠은 확보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해 RE100을 대응하는 선순환 구조의 사업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지난해 포스코에너

지를 성공적으로 합병하며 에너지 전문 기업으로 출범한 포스코인터내셔널과 친환경 미래소재 전문기업 포스코퓨처엠이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해 함께 시너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앞으로 양사는 포항에 있는 양극재 공장, 인조흑연 음극재 공장에도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를 검토하는 등 중장기적으로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이통3사, AI 스타트업 확보전 ‘활활’… 신사업 경쟁력 강화

SKT, 사피온과 인프라 협력 강화
스캐터랩에 150억 투자 단행해
KT, LMM 개발 등 B2B 시장 공략
LGU+, 포티투마루 100억 지분투자

국내 정보통신기술(ICT) 업체들이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 확보전에 돌입했다. 최근 AI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6일 ICT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는 AI 분야 스타트업에 지분 투자나 전략적 협업에 나서며 올해부터 관련 사업을 구체화하고 있다. 최근 유무선 사업이 둔화되자 AI를 중심으로 한 신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 몇년 간 5G 가입자 증가폭은 두자리 수에서 한자리로 대폭 줄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월 평균 14%대의 성장률을 보였지만, 지난해부터는 1.5%까지 감소했다. 9월에는 0.9%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는 1%대로 떨어졌다.

이에 업계는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기 위해 기술력을 확보한 스타트업과의 협력을 늘리고 있다. 주요 협력 분야는 인공지능(AI)이 꼽힌다.

먼저 SK텔레콤은 AI 반도체 자회



사인 사피온과 협력을 강화해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고 있다. 사피온은 지난해 차세대 추론용 AI 칩 ‘X330’을 공개했다. X330은 경쟁사의 최신 추론용 모델 대비 연산 성능 약 2배, 전력 효율이 1.3배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SK텔레콤은 자회사를 넘어 국내외 AI 기업에도 적극 투자하고 있다. 글로벌 거대언어모델(LLM) 기업인 엔트로픽과 국내 업체들인 코난테크놀로지, 스캐터랩 등과도 투자를 통한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 코난테크놀로지와 SK텔레콤은 최근 MOU를 통해 생성형 AI, AI 비전, AICC, AI 데이터로 협력 분야를 구체화했다. 특히 지난해는 SK텔레콤의 AI 비서 서비스인 ‘에이닷’을 고도화하기 위해 ‘이루다’

로 유명한 ‘스캐터랩’에 150억원 투자를 단행했다.

KT는 지난달 국내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리벨리온의 시리즈B 라운드에 330억원을 투자했다. 향후 리벨리온에서 출시하는 다양한 AI 반도체 라인업을 활용해 AI 인프라·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는 AI 소프트웨어 업체 모레에도 150억원을 추가 투자했다.

KT는 또 스타트업과 협력해 특화된 LLM을 개발하는 등 기업 간 거래(B2B) 시장을 공략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KT는 국내 AI 스타트업들인 업스테이지와 판다에 200억원 규모를 투자했다. 업스테이지는 개방형 LLM

분야에 특화된 기업이다. 앞서 생성 AI 미세조정 성능 경쟁에서 ‘챗GPT’ 기반 모델인 GPT-3.5를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판다는 수학 문제 등을 사진으로 찍어 올리면 AI가 정답과 풀이를 제공하는 교육 특화 앱이다.

뒤이어 LG유플러스가 AI 스타트업 확보전에 뛰어들었다. 다만, 앞서 두 통신사에 비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투자에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AI 인프라에 막대한 투자를 쏟아붓는 것보다 내부 기술력이 중요하다는 입장에서다.

LG유플러스는 지난 7일 언어 AI 전문 스타트업 ‘포티투마루’에 100억원 규모의 지분투자를 단행했다. 포티투마루는 AI 기반 ‘딥 시맨틱 질의응답’ 솔루션을 보유한 스타트업이다. 딥 시맨틱 질의응답은 정답 후보군을 여러 개 제시하는 기존의 AI 구동 방법이다.

사용자의 질의를 이해한 뒤 단 하나의 대답을 도출해낸다. 포티투마루의 솔루션은 각 기업별 도메인 특화가 가능해 AI 허위정보를 최소화한다. 이에 AI 솔루션 대비 비용 효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양사는 AI 솔루션의 고도화를 위해 거대 언어 모델과 AI 관련 기술에 대한 공동 연구개발을 진행한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LIG넥스원

천문원과 우주기술 개발

LIG넥스원이 천문우주기술 분야 기술 개발과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한국천문연구원과 손잡았다.

LIG넥스원은 지난 5일 경기도 성남시 LIG넥스원 판교R&D센터에서 한국천문연구원과 ‘천문우주분야 관련 포괄적 상호 협력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최종진 LIG넥스원 C4ISTAR사업부문장과 박영득 한국천문연구원장 등 LIG넥스원과 한국천문연구원 주요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LIG넥스원과 한국천문연구원은 ▲우주 관측 기술개발 및 공동연구 ▲기술 국산화 및 사업화 ▲공동장비 활용 등 상호협력 활동을 대폭 강화하고, 천문·우주·국방 분야의 임무 기획과 시스템 개발 등도 공동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신익현 LIG넥스원 사장은 “우주 관측 솔루션은 미래 전장의 게임체인저로 부각되고 있는 우주항공 분야의 핵심 기반기술로 높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LIG넥스원은 한국천문연구원과의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우주·지구 관측 분야의 R&D 및 사업역량 강화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전자, 온디바이스 AI 기술 고도화

업스테이지와 맞춤형 AI 제공 경량화 언어모델 등 개발 협업 AI 노트북 시장 적극 공략 확대

LG전자가 AI 기술 개발 및 서비스 기업인 업스테이지와 온디바이스 AI 기술 고도화에 나선다.

LG전자는 최근 업스테이지와 업스테이지와 ‘온디바이스 AI 기술 개발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이번 MOU를 통해 온디바

이스 AI 기반의 ‘경량화 언어 모델(SLM)’과 노트북에 적용하는 AI 기능 및 서비스 개발 협업 등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업스테이지 솔라 모델을 활용해 LG그램 등에 맞춤형 AI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LG전자는 LG그램 프로에 인텔 AI CPU를 탑재하고 다양한 온디바이스 AI 기능을 도입한 바 있다.

업스테이지 최홍준 부사장은 “양사가 온디바이스 AI 기술을 함께 개발하고 적용함으로써 더욱 빠르고 편리

하며 안전한 AI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LG그램에 최고 성능의 AI를 적용해 전 세계 고객들이 AI 기능을 보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LG전자 공혁준 IT CX담당은 “LG그램은 지난 10년간 끊임 없는 혁신으로 초경량 프리미엄 노트북 시장을 선도해 왔다”며 “AI 분야 앞선 기술 경쟁력을 기반으로 차세대 AI 노트북 시장을 적극 공략할 것”이라고



업스테이지 최홍준 부사장(왼쪽)과 LG전자 공혁준 IT CX담당이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말했다.

/김재웅 기자 juk@

포스코, 연산 250만톤 전기로 공장 착공

포스코가 광양에 연산 250만톤 규모의 전기로 공장을 착공했다.

6일 광양제철소에서 열린 전기로 신설사업 착공식에는 김학동 포스코 대표이사 부회장을 비롯해 박창환 전라남도 정무부지사, 정인화 광양시장, 김태균 전라남도의회 부의장, 염동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남지역본부장, 시공사 임직원 등 총 130여 명이 참석했다.

국제사회의 탈탄소 정책 수립이 가속화되고 저탄소 제품 공급 요구가 확대되는 가운데, 포스코는 저탄소 생산 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약 6000억원을 투자해 연산 250만톤 규모의 대형 전기로를 신설하기로 했으며, 2025년 말에 준공하고 2026년부터 본격적인 가

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날 김학동 부회장은 “글로벌 기후 위기 및 신무역규제 등으로 경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하는 가운데, 포스코는 이번 전기로 신설을 시작으로 신속하고 경쟁력 있는 저탄소 생산체제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포스코는 전기로에서 생산한 쇳물을 바로 활용하거나, 고로에서 생산한 쇳물과 혼합하는 합탕 기술을 적용해 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다. 또 전기로 조업 중에 발생하는 배가스(내연기관에서 불필요하게 되어 배출하는 가스)를 스크랩 예열에 사용함으로써 에너지 효율을 높일 계획이다.

/양성운 기자 ysw@

LS일렉트릭, 배터리 공정 솔루션 국산화

LS일렉트릭이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제조 공정 제어기 국산화에 나선다.

LS일렉트릭은 지난 5일 LG에너지솔루션 오창 에너지플랜트에서 LG에너지솔루션과 ‘배터리 공정 제어기 국산화 사업 추진을 위한 제휴협약’을 체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사는 해외 기업 점유율이 80%에 달하는 배터리 제조 공정 자동화 솔루션을 국산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프로젝트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향후 배터리 라인에 이를 도입할 계획을 논의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도입할 배터리 팩 제조 공정을 공동 개발하고 제조설비를 정해진 순서, 조건에 따

라 동작하게 하는 PLC(Programmable Logic Controller)를 비롯, 서보(Servo), HMI(Human Machine Interface), 인버터 등 제조 전 과정을 제어하는 자동화 솔루션 일체를 국산화한다는 계획이다.

양사는 국산화를 통해 부품 수급의 안정성과 사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핵심 산업 기술력을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했다.

앞서 LS일렉트릭은 2021년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캐스퍼 생산라인에 국내 최초로 자동화 라인을 구축한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과 함께 배터리 공정 자동화 시장도 공략한다는 방침이다.

/김재웅 기자

SK하이닉스

500여개 협력사에 2400억 조기 지급

SK하이닉스가 명절을 앞두고 500여개 협력사에 거래대금 약 2400억원을 조기 지급한다고 6일 밝혔다.

SK하이닉스는 조기 대금 지급을 통해 협력사 원활한 자금 운용을 돕고 내수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기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다운턴을 함께 극복한 협력사들에 고마움을 전하고, AI 인프라 핵심기업으로 함께 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SK하이닉스는 2020년부터 거래대금을 월 3회에서 4회로 늘리고 ‘상생펀드’를 3600억원 규모로 운영하는 등 상생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SK하이닉스 김성환 부사장(FE구매)은 “SK하이닉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반도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노력해 왔다”며 “앞으로도 협력사와 동반성장하기 위해 다양한 상생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김재웅 기자



SK하이닉스 이천 행복문.

/SK하이닉스



와인픽스 이케아 광명점 GRAND OPEN 2024.02.08

OPEN EVENT
02.08 - 02.28

와인, 위스키, 사케, 맥주, 글라스, 치즈 등 주류와 관련된 2,500여 종의
상품을 만날 수 있는 와인픽스 이케아 광명점에 초대합니다.

INFO

영업시간

평일 | 11:00 - 20:30
주말/공휴일 | 10:00 - 21:00
* 설날 당일은 휴점합니다.

인스타그램



블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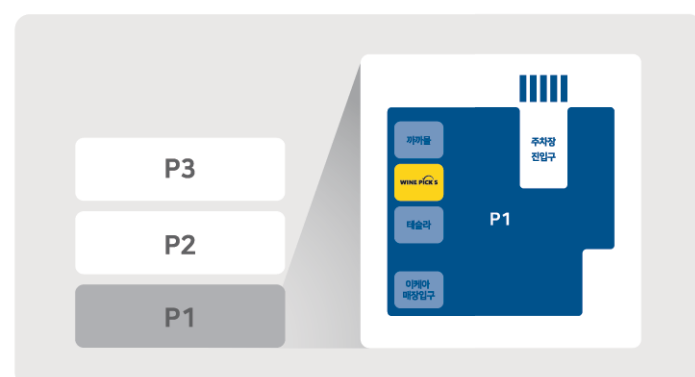


TEL

02-899-4777

찾아오시는 길

경기도 광명시 일직로 17 이케아 광명점 P1 주차장



※ 경고: 지나친 음주는 뇌졸중, 기억력 손상이나 치매를 유발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형아 출생 위험을 높입니다.

WINE PICKS

中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 경제·주식시장 악영향 미쳐

CSI 300지수, 1년간 22.7% 하락
GDP 성장률 목표치 달성했지만
투자부진 등 하방 압력 여전히
스노우 볼 상품 인한 청산 발생 우려

중국 증시의 하락폭이 확대되면서 투자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각종 부양책에도 지난 1년 간 하락폭만 30%에 달하는 상황이다.

6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지난 주말 기준 중국 상하이·선전 증시의 시가총액 상위 300개 종목으로 구성된 CSI 300 지수는 지난 1년 간 22.7% 하락했다. 선전종합지수는 33.8% 떨어져 하락폭이 더 확대됐고, 상해종합지수 역시 17.2% 하락했다.

지급준비율 인하에도 연일 저점을 경신하다가 이날 반등했지만 여전히 바닥을 점치기 어려운 상황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어둡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5.2%로 목표치를 달성했지만 부동산 침체를 비롯해 투자부진과 기업 부실 등 경기 하방 압력은 여전히 있다.

문남중 대신증권 연구원은 “중국은 2022년 이후 리오프닝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기 회복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자 주식시장도 위축되는 모습”이라며



/유투이미지

“작년 7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면서 수요부족에 따른 디플레이션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문 연구원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중국이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폐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주식시장 위축과 실물 경제로의 전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부동산 경기가 회복되지 않는다면 올해 중국 경제와 주식시장은 불편한 한 해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이 중진국 함정의 영향권에 들어섰다는 점도 악재다. 중국의 잠재성장률은 2008년 9.9%를 기록한 이후 2023년 5.4%로 하락했다. 자본 생산성 하락과 함께 핵심연령인구가 줄면서 노동생산성 또한 추세적으로 둔화될 수밖에 없다.

반면 중국의 가계부채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는 2006년 3월 11.5%에 불과했지만 작년 2분기에는 62.0%까지 확대됐다. 향후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따른 소비 회복이 기대되지만 가계의 채무상환 부담이 높아 소비 회복이 예상보다 미약할 수도 있다.

수급 상황도 부정적이다.

박인금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의 하락세가 지속되자 2월 들어 스노우 볼 상품(ELS와 유사)의 대규모 청산이 발생했다”며 “공모펀드 환매와 공포심리에 따른 투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박 연구원은 “향후 중국 증시가 추가적으로 하락하면 스노우 볼 상품의 청산 뿐만 아니라 신용자금의 마진콜,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비율 하락으로 인한 청산 발생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재 신용거래 잔고가 줄었고, 대주주의 주식담보대출 규모가 전체 시가총액의 3.1%에 불과하다는 점은 다행이다.

박 연구원은 “결국 패닉 장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그널로는 춘절 연휴 이후 증권거래소의 기관 매도 금지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며 “시장 움직임을 정부의 인위적 개입보다 시장 메커니즘 작동에 맡겨야 시장의 신뢰가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거래소, 오는 19일 30년국채선물시장 개장

교보·메리츠증권 등 6개사 선정
국내 금리시장 혁신·성장 기대

한국거래소가 오는 19일 30년국채선물시장을 개장한다.

거래소는 국제시장 발전과 초장기 금리변동 리스크 헤지수단 제공을 위해 30년국채선물시장을 19일에 개장한다. 이에 따라 지난해 12월 27일부터 올해 1월 2일까지 규정(세칙) 개정 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5일 업무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통화정책의 완화 및 긴축에 따른 금리변동에 대해 시장참여자들에게 초장기국채금리 리스크 헤지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기 재정자금의 안정적 조달을 위해 만기 20년 이상의 초장기국채 발행을 확대했으며, 이에 투자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초장기국채 발행량 중 국고채 30년물 비중이 약 76%를 차지하고 있다.

거래소는 2022년 9월 초장기국채선물 도입여건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거쳐 같은 해 11월 30년국채선물 도입 협의체를 구성·운영했다. 또한, 지난달 17일부터 오는 16일까지는 모의시장을 운영하고 있다. 교보증권·메리츠증권·신한투자증권·키움증권·하이투자증권

권·한양증권 6개사를 시장조성자로 선정했다.

거래소는 30년국채선물 시장은 보험·연기금의 초장기국채 금리변동 헤지 및 증권사·은행·외국계의 국제선도 거래 헤지 등에 활발히 이용될 것으로 기대했다. 더불어 수익률 곡선을 활용한 기간금리간 차익거래 및 현선 차익거래 등을 통해 현·선 시장 성장이 더욱 가속화되고, 가격발견기능이 개선돼 양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제고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금리방향에 대한 투자전망을 기반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손쉽게 선물 포지션을 구축하려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과, 알고리즘 거래·글로벌 국제선물 거래 등 다양한 투자전략을 구사하는 전문투자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30년국채선물 상장에 따라 90일 단기금리(KOFR)에서부터 30년 초장기국채 금리에 이르는 금리선물 라인업을 완비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KRX 국제파생상품을 투자 및 위험관리수단으로 적극 활용함으로써 채권, 장외 금리파생상품, ETP 등 국내 금리시장 생태계의 혁신 및 성장을 이끌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국내 기업인 76% “올해 경제성장 부정적”

EY한영, 2024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

주요 기업인들의 올해 국내 경제 전망은 대체로 부정적인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6일 글로벌 회계·컨설팅 법인 EY한영이 국내 기업 고위 경영진 457명을 대상으로 ‘EY한영 2024년 경제 전망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5%는 올해 국내 경제 성장을 ‘다소 부정적’, 11%는 ‘매우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다소 긍정적’ 또는 ‘매우 긍정적’으로 답한 비중은 24%에 그쳤다.

다만 85%가 부정적으로 응답했던 작년 대비 2024년 조사에서는 부정적 응답이 소폭 하락했다.

산업별로는 부동산·건설(92%), 통

신·인터넷(91%) 산업 종사자들은 부정적인 응답이 지배적이었다. 반면 의약·바이오·생명과학(62%)과 IT·기술·전자·반도체(64%) 산업 응답자들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응답이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응답자들은 국내 경제 상황에 대해서 비관적인 견해를 보였지만 자신이 속한 개별 기업의 경영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보였다.

응답자 중 49%는 2024년 경영 실적이 2023년 대비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년(26%) 대비 두 배 가까이 높아졌다. 특히 의약·바이오·생명과학(71%), IT·기술·전자·반도체(63%), 소비재·유통(61%) 산업의 응답자들이 높은 성장 기대감을 보였다.

/안상미 기자

“저PBR주, 연휴 기간 숨고르기·옥석 가리기”

(주가순자산비율)

단기과열·급등 매물 소화 과정 필요
시클리컬 업종 중심 차익실현 압력↑
기관·外人, 평균 연휴 3일전 수매도

국내 증시가 저PBR(주가순자산비율)주에 강력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명절 연휴 동안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증권가에서는 외국인 자금 이탈, 차익 실현 등 변동성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다.

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국내 증시는 오는 9일과 12일 설 연휴로 인해 휴장한다. 저PBR주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짝 랠리를 달리고 있던 만큼 연휴 휴장 기간 동안 숨고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단기 과열, 급등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는 매물 소화 과정이 필요하다”며 “추세적인 상승이 유효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한 템포 쉬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내다봤다.

특히 투자가 몰렸던 저PBR 종목들은 ‘옥석 가리기’가 중요해진 모습이다. 정부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예고하면서 개별 종목뿐만 아니라 상장지수펀드(ETF)들도 거래량이 수십 배까지 폭증했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의 ‘ACE 주주환원가치주액티브’ ETF의 경우, 이달 들어 평균 거래량 8만8872주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평균 거래량(1656주) 대비 약 50배를 넘기는 규모다. 주식시장



/유투이미지

내 과열 양상이 번짐과 동시에 명절 시즌이 겹치면서 변동성이 높아질 수 있는 여지가 커진 셈이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지난 한 주 동안 단기간에 저 PBR주들이 동반 폭등한 측면이 있으며 후반에는 연휴 휴장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수 있다”며 “결국 저 PBR주들 사이에서 이익, 배당 및 자사주 모멘텀을 고려한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그 과정에서 지난주 급등한 시클리컬 업종 중심으로 차익실현 압력이 높아질 전망이다”라고 분석했다.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정책 수혜 종목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주주환원 확대, 지배구조 개선 의지에 대한 부분을 잘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이웅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투자자들은 저PBR 주식을 마치 초전도체 테마주처럼 매수하는 모습”이라며

“실제 정책 개선의 수혜를 받아 주주환원이 확대되고, 지배구조 개선이 장기적으로 지속될 여지가 있는지 판단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저PBR 종목에는 돌아섰던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되돌아왔던 만큼 외국인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관건이다. 염동찬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기관과 외국인은 평균적으로 연휴 3일 전부터 주식을 순매도했다”면서도 “평균적으로 설 연휴보다는 추석 연휴 이후에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슈가 적은 설 연휴 기간은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김정윤 대신증권 연구원도 “설 연휴를 앞두고 너무 가파르게 급등한 점은 단기적으로 분명한 부담 요인”이라면 서도 “향후 외국인 투자자들의 추가적인 자금 유입도 여전히 유효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하은 기자 godhe@

보로노이 “주담대 만기연장 불가 부당”

한투증권에 민사소송 제기

보로노이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일방적인 주식담보대출 상환 요청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서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6일 보로노이에 따르면 최대주주인 김현태 경영부문 대표는 지난해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유지분을 전량에 해당하는 신주를 인수하기 위해 85만주(4.9%)를담보로 제공하고 한국투자증권에 1년 만기 250억원 규모 대출을 받았다. 하지만 3개월만인 지난해 11월 한국투자증권은 일방적인 만기 연장 불가를 통보하고 상환을 요청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충분한 법리 검토

끝에 지난 5일 김 대표가 만기 연장 불가 통보 및 상환 요청이 부당함을 입증하기 위해 법률대리인을 통해 한투증권 측에 ‘채무 부존재의 소’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주식 매각을 통한 대출 상환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김 대표가 담보로 제공한 85만주는 코스닥 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오는 2025년 6월 23일까지 의무보유(보호예수)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보로노이측은 주력 파이프라인 VRN11과 VRN10 글로벌 임상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며 최대주주 주식담보대출 이슈는 회사의 펀더멘탈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SK이노, 작년 영업익 ‘반토막’… 배터리 매출은 ‘역대최대’

정제마진 하락 여파 영업익 51%↓
연간 매출 77.3조, 영업익 1.9조

“올 불확실 환경 속 판매량 증가세
출하량 증가 등 하반기, 개선 기대”

SK이노베이션이 지난해 정제마진 하락 등의 여파로 연간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반토막 났다. 다만 지난해 배터리 사업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달성하며 수익성 개선세를 이어갔다. 특히 배터리 사업부에 7조원이 넘는 투자를 진행해 올해 실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각오다.

SK이노베이션은 연결 기준 지난해 연간 매출 77조2885억원 영업이익 1조9039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공시했다.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0.98% 줄었고 영업이익은 51.4%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액은 19조5293억원, 영업이익은 726억원을 달성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3598억원, 1조4905억원 감소했다.



SK이노베이션 울산CLX 전경.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액은 3926억원 늘었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했다.

SK이노베이션은 6일 실적 발표 후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올해 전반적인 경영 환경은 불확실한 상황이나 연간 판매량은 증가 추세를 이어갈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 재고 소진에 따른 출하량 증가, 낮은 메탈가 유지로 인한 배터리 가격 하락, EV 신차 라인업 확대 등을 통해 실적 개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보면, 석유사업은 정제마진의 약세,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관련 손실 영향 등으로 전분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 화학사업은 제품 스프레드 하락에 따른 마진 감소, 정기보수에 따른 물량감소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

운할유사업은 계절적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수요를 유지했지만, 유가 하락에 따른 재고 효과 등의 영향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

석유개발사업은 유가 하락에도 불구하고, 중국 17/03 광구가 운영을 시작하면서 판매물량이 늘어나 전분기 대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했다.

배터리사업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2조 8972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70% 증가하며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 메탈가 하락 등에 따른 역대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사이트 수율 향상 등 해외법인의 전반적인 생산성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법인 비용 절감에 따른 원가 감소 효과로 영업 손실률을 최소화하는 등 수익성이 개선됐다. 소재사업은 생산원가 감소 등 비용개선 효과와 중국 법인 인센티브 반영 등으로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늘었다.

회사에 따르면 SK온의 수주 잔고는 지난해 말 기준 110조원으로 2020년 말 대비 110조 이상 늘었다. 현재 기존 고객사와의 증량 및 신규 고객사와 협의 중인 물량을 고려하면 수주 물량은 이보다 늘어날 전망이다.

김지원SK이노베이션재무본부장은 “배터리 사업에서 주요 전략 시장인 북

미에 이미 확정된 포드·현대차 JV(조인트벤처)에 투자가 집중될 것”이라 설명했다.

SK온은 올해 상반기 헝가리 3공장과 중국 옌청 공장의 증설을 완료하고 사업 생산에도 적극 나선다.

박정아 SK온 IR 담당은 “올해 증설 예정인 두 공장은 현재 높은 수준의 수요를 기록 중인 곳 근처에 있어 조속한 초기 수요 안정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기존 계획 대비 2개월 이상 수요 안정화 기간을 단축할 예정으로 보다 빠른 램프 업(생산량 확대)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회계연도에 대해 현금 및 현금배당을 대신해 배당가능이익의 범위 내 자사주를 이사회 결의에 따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 총 491만9974주로 장부가 기준 7936억원 규모이다. 이는 기존 발표한 배당성향 30%를 상회하는 주주환원 정책으로, 2023년 실적 기준 배당과 자사주 소각을 포함한 주주환원율은 319%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기업, 1만원 팔면 물류비로 690원 쓴다

대한상의, 제조업체 등 1500곳 조사
매출액 500억 미만 중소기업 7.8%
3000억 이상 기업 4.4%의 두배수준

기업들이 1만원짜리 제품을 팔면 물류비로 690원을 지출한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업 및 도·소매업체 약 1500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4분기 실시한 기업물류비 실태 조사에 따르면 2022년도 기업의 매출액 대비 물류비 비중은 6.9%로 나타났다.

규모별로는 매출액 500억원 미만 중소기업의 물류비 비중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이는 매출액 3000억 이상 기업의 물류비(4.4%)의 두 배에 달한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규모의 경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워 물류비 비중이 높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는 ‘음식료품’(10.9%)과 ‘소매업’(10.6%)의 물류비가 가장 높았다. 음식료품은 상품유통 과정에서 포장

비가 많이 들고 추가적으로 냉동냉장 시스템이 필요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소매업은 특성상 주문, 배송, 반품에 상대적으로 많은 인력과 업무량이 필요해 물류비가 높게 나타났다.

영역별로 보면 소매업의 판매물류비 비중은 44.5%로 전체 평균(40.4%)과 비교해 4%포인트 높고, 리버스(회수·폐기·반품) 물류비 비중 11.5%까지 반영 시 56%로 전체 물류비의 절반 이상을 상품을 판매·관리하는 비용으로 지출하고 있는 모습이다.

전체 물류비 중 운도에 영향을 받는 정온제품을 취급하는 물류비 비중은 대한상의가 조사를 시작한 2016년 7.9%에서 2022년 36.3%로 6년 새 4.6배 확대되는 등 콜드체인 물류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통계청 온라인쇼핑 동향조사에 의하면 온라인쇼핑 품목 중 콜드체인이 동반되는 음·식료품, 농축수산물, 음식 서비스 상품군의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균 31%씩

증가하면서 6년간 시장규모가 13조 2000억원에서 67조1000억원으로 5.1배 성장했다.

기업들이 꼽은 물류비 절감 방안으로는 ‘체계적인 물류비 산정 관리’가 37.6%로 가장 많이 나왔으며, ‘배송빈도·적재율 향상’(31.4%), ‘재고관리 강화’(30.8%), ‘물류정보화·표준화·자동화’(24.3%), ‘수·배송 경로 개선’(20.0%), ‘물류 아웃소싱’(13.4%) 등의 순이었다.

대한상의 김민석 유통물류정책팀장은 “몇년 간의 코로나, 러-우 전쟁, 홍해를 비롯한 중동리스크 등으로 유가와 해상운임이 오르는 등 물류비가 높아졌다”면서 “중소기업은 공동물류를 통해 물류 원가를 절감할 수 있는 만큼 정부는 중소기업 간 물류협업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유통기업에 대해선 유통물류시설 자동화와 스마트화를 촉진하기 위한 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

정유실적 부진… HD현대, 작년 영업익 40%↓

매출은 0.8% 늘어 61.3조 기록

HD현대가 정유 부문 실적 감소 여파로 지난해 부진한 성적표를 기록했다. 다만 매출은 2년 연속 ‘60조원 이상’을 기록했고, 그룹의 핵심인 조선 부문은 3년 만에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D현대는 연결 기준 지난해 매출 61조3313억원, 영업이익이 2조316억원을 기록했다고 6일 밝혔다. 매출은 친환경 선박 수주 증대에 따른 건조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전년 대비 0.8% 증가

한 반면 영업이익은 국제유가 및 정제마진 하락 등 정유 부문의 실적 감소로 40% 줄어들었다.

주요 사업별로 살펴보면, 조선·해양 부문의 HD한국조선해양은 글로벌 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에 따른 수주량 확대와 건조물량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23.1% 증가한 21조 2962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영업이익은 수익성 위주의 선별 수주 전략에 따른 선가 상승분이 실적에 반영되며 3년 만의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HD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HD현대중공업은 32.3% 늘어난 11조 9639억원, 현대미포조선은 8.7% 증가한 4조 391억원, 현대삼호중공업은 28.2% 증가한 5조 9587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특히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년 대비 1604.5% 증가한 3017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며 실적 개선을 주도했다.

HD현대마린솔루션은 선박 부품서비스 사업 수주 호조세와 스마트 선박 운영관리·자동화 솔루션 등 디지털 제어 사업 확대로 전년 대비 7.2% 늘어난 매출 1조 4305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이익은 41.9% 증가한 2015억원을 기록하며 성장세를 이어 나갔다.

/양성운 기자 ysw@

〈'23.11월 ~ '24.1월 소속회사 수 변동 현황〉

/자료=공정위

2023. 11.1.	편 입				제 외					증감	2024. 2.1.
	회사 설립	지분 취득	기타	계	흡수 합병	지분 매각	청산 종결	기타	계		
3,084	28	16	5	49	30	14	19	27	90	△41	3,043

대기업 첨단분야 계열사 8곳 늘었다

대기업 계열사에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첨단분야 회사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최근 3개월간(2023년11월~2024년1월) 발생한 자산 5조원 이상 대규모기업집단의(이하 대기업집단) 소속회사 변동 현황을 공개했다.

대기업집단 소속회사는 작년 11월1일 기준 3084개에서 올해 2월1일 기준 3043개로 41개 감소했다. 해당 기간 소속회사 변동이 있었던 대기업집단은 47곳이다.

공정위, 소속회사 변동 현황
3개월간 41개 집단서 90개 계열 제외
SK, 반도체 테스트 관련업체 인수
현대차·LS·롯데 등도 계열사 편입

구체적으로 회사설립(신규 22개사, 분할 6개사), 지분취득(16개사) 등으로 27개 집단에서 49개사가 계열 편입됐고, 흡수합병(30개사), 지분매각(14개사), 청산종결(19개사) 등으로 41개 집단에서 9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신규 편입 회사가 많은 집단은 SK(6개), 현대자동차(4개), 한화·LS·DL(각 3개) 순이고, 제외된 회사가 많은 집단은 농심(10개), SK·카카오(각 8개), 보성(5개) 순이다.

지난 변동 현황과 비교하면, 회사설립으로 계열 편입된 회사 수는 14개 감소했고, 흡수합병으로 계열 제외된 회사 수는 21개 증가해, 대기업집단 소속 회사 수는 전체적으로 41개 줄었다.

소속회사 변동 특징을 보면, 반도체, 자동차, 2차전지,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사업역량 확대를 위한 지분인수와 회사설립이 다수 이뤄져 4개 집단 8개사가 계열 편입됐다.

SK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부품업체인 아이에스시를 인수해 그 자회사인 아이에스시엔, 아이티엠티시, 프로웰이 동반 편입됐다. 현대자동차는 자동차 모듈 및 핵심부품 생산업체 모비언트 및 테크젠을, LS는 2차전지 양극재용 전구체 업체 엘에스엘엔에프배터리솔루션을 설립해, 롯데는 유전자 검사업체 테라젠헬스를 인수했다.

부동산 개발·관리 및 건설 분야 계열 편입과 제외도 활발했다.

신세계의 부동산투자회사 설립·운영업체 신세계프라퍼티인베스트먼트, D.L의 오피스텔 및 비주거 건물 개발·공급업체 엔에스파트너스, SM의 부동산 개발업체 STX건설산업 등 8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편입됐다.

반대로 롯데의 롯데테크디앤디, 한화의 서산테크노밸리, GS의 케이글로벌일반사모부동산투자유한회사 제2호, 카카오의 플러스투퍼센트 등 12개 집단의 17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한편,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업집단 소속 ‘산학연협력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에 대한 영구적 계열제외가 가능해짐에 따라, 삼성의 성균관대학교기술지주, 포스코의 포항공과대학교기술지주, HD현대의 울산대학교기술지주 등 6개 집단의 10개사가 계열 제외됐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정부, 외국기관 환전 거래상대·시간 확대한다

기재부, 글로벌 투자자 대상 설명회
이달 중 금융위 등 협의 방안 마련

국내 주식시장 등에 투자하는 외국 기관이 보다 다양한 시간대에 편리하게 환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이달 중 발표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5일(현지시간) 런던에서 글로벌 투자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설명회는 한국 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외환 시장 구조 개선의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환전과 관련한 건의사항이 제시됐다. 외국인 투자자가 보다 다양한 외환거래 상대방(외환 은행)과 다양한 시간대에 편리하게 환전하기 위해서는 환전 대금의 결제 실패 위험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관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김 차관은 이런 요구를 반영해 1분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이 5일 오전(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런던 현지 글로벌 투자자 설명회에서 한국경제 상황과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뉴시스

기 중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환전 거래상대와 시간의 선택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방안은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이달 중 발표할 계획이다.

김 차관은 외국 금융기관이 원화 자산 투자 시 환헤지(위험분산) 가능 규모가 실수요(투자한 원화자산의 가치) 범위로 제한된다는 일부 외국인 투자자들의 오해에 대해서도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바로잡았다.

그는 “현재 추진 중인 외환시장 구조 개선 조치들은 외국인들의 원화에 대한 접근성을 선진 통화 수준으로 제고해나가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시로 듣고 외환제도·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한국 자본시장의 근본적 매력도 제고를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글로벌 주식·채권 투자기관으로부터 우리 외환시장 접근성과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다수의 외국인 투자자는 외환시장을 외국은행에 개방하고 거래시간을 런던 영업시간에 맞춰 새벽 2시까지 대폭 확대한 최근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투자자들은 또 이러한 변화가 실제 외환 수요자인 외국인 주식·채권 투자자들의 실질적 환전 편의 제고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농어촌공사

‘한·일 농업분야 워크숍’

정책·기술 동향 공유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어촌공사는 5, 6일 양일간 공사 농어촌연구원 등에서 한·일 양국의 농업기술 발전을 위한 ‘제13차 한·일 농업분야 실무급 공동 워크숍’을 개최했다.

한·일 실무급 공동 워크숍은 2007년부터 한·일간 농업분야 교류 협력을 위해 추진됐으며, 이번 행사는 2020년(코로나 이후) 4년 만에 개최됐다. 농림축산식품부, 공사, 일본 농림수산성, 농업분야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한·일 농업 및 이상기후 대응을 위한 정책·기술 동향’을 주제로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국제농업정책 ▲생산기반 설계기준 ▲미래농업발전방향 ▲수자원 확보 방안 ▲기후위기 대응방안 등 양국 농업 전반에 대한 정책·기술을 동향을 공유하고 농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이번 기회를 통해 기후·환경·농업 등 지리적, 환경적으로 유사한 양국의 공통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진행될 논 농업지역에서의 물·생태계 국제네트워크(INWEPF), 국제관개배수위원회(ICID) 등 다양한 국제기구 행사에서 농업생산기반 정비, 농촌개발 등 농촌·농업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과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 협력을 강화해야한다는 데 다시 한번 의견을 모았다.

/신하은 기자 godhe@

농식품 벤처·스타트업 성장에 최대 5억 지원

농식품부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
심사 후 우수기업 15개사 내외 선정

농림축산식품부가 6일 ‘2024년 민간투자기반 스케일업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벤처·창업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기간은 오는 2월 7일~3월 11일이며, 서류와 발표 심사를 거쳐 우수기업 15개사 내외를 선정한다.

이 사업은 우수기술과 참신한 생각(아이디어)으로 사업화에 성공한 농식품 분야 창업기업의 빠른 성장을 지원



정부세종청사 내 농식품부 전경. /메트로

하기 위해 올해 새로 도입한 사업이다. 민간의 투자와 추천을 받은 우수기업에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

원한다.

농식품부는 “그간 우수기술의 사업화를 위해 매년 370여개 기업을 선정해 자금, 투자유치, 판로개척 등을 지원해 왔으나, 창업 이후 자금확보가 어려워 추가 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현장 의견에 따라 본 사업을 신규 편성했다”고 밝혔다.

참여 대상은 민간 투자사(창업투자자, 벤처투자사 등)로부터 최근 2년 내 1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하고 추천을 받은 농식품 분야 벤처·창업기업이다. 우수기업 15곳 안팎을 뽑는다.

선정된 기업은 민간투자 규모에 따

라 최대 5억 원의 사업화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또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을 통해 투자상담(컨설팅) 및 기업설명(IR), 농식품 창업박람회 내 전용관 제공 등 다양한 후속지원이 제공된다.

세부사항은 ‘농식품 창업정보망(www.a-startups.or.kr)’에 게시된 사업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상만 농식품혁신정책관은 “역량 있는 우수기업이 성장할 좋은 기회”라며 “이 사업을 통해 농식품 분야 거대신생기업(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하는 기업이 나타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수계관리기금으로 수돗물 안정적 공급

환경부, 3대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
수돗물 수질 오염 등 사고 대응 추가

환경부는 6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등 3대강의 관리 지침이 변경돼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물관리 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의 ‘3대강(낙동강·금강·영산강) 수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법의 목적에 ‘깨끗한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문구가 추가됐다. 또 수계관리기금 용도에 1)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대응을 위한 사업 2)수돗물 수질 오염 등 사고 대응을 위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개정으로 신설되는 물관리 사업은 ‘수도법(제3조 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중 △취수·정수시설의 유지

관리 △하천수 등 수자원의 이용현황 조사 및 연구 △유출·방치된 가축분뇨 및 퇴비·액비의 관리 △조류(藻類)에 방 및 저감 사업 등 총 4개 사업이다.

이번 개정은 수돗물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취수 및 정수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 비용을 지원한다. 또 정확한 수자원 이용현황을 파악하여 가뭄 발생 시 효율적 수자원 이용을 지원한다. 아울러 비가 내릴 때 비점오염원의 상수원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사업에 수계관리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종률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수계관리기금을 수돗물 수질오염사고,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 등으로 물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관련 사업이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안정적으로 수돗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 등 방안 모색”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청년 축산농업인 등과 간담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6일 오후 경기 평택에 위치한 지능형 양돈농장을 찾아 스마트 축산 현장을 참관했다. 또 미래형 스마트축산을 실현하고 있는 청년 축산농업인과 스마트축산 확산 방안에 대한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에 방문한 축산농장(로즈팜)은 어미돼지·새끼돼지 등 성장단계를 감안해 데이터 기반 사료공급량을 최적화했다. 일반농가 대비 사료비를 19% 절감하고, 축사내 공기를 중앙에 집중해 배기하는 시스템과 공기 세정기(에어워셔) 등을 도입해 악취를 획기적으로 저감한 지능형 양돈장이다.

송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스마트축산은 생산성 향상, 악취와 가축질병의 과학적 관리 등 축산현장의 구조화된 문제 극복을 위한 유력한 수단으로 우리 축산업계가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강조했다. 이어 스마트축산 보급·확산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현장 간담회에서는 청년농업인, 스마트장비업체, 축산물품질평가원원 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서 청년 농업인들은 ▲솔루션 중심의 지능형농장(스마트팜) 보급·확대 강화 ▲실습 교육장 등 청년 농업인들의 체험·기회 확대 ▲스마트장비 및 솔루션 활용 확대를 위한 축산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을 건의했다.

이에 송 장관은 “스마트축산 보급 확대를 위해 축종별 및 분야별 성과모형을 창출하고, 도입 농가의 교육·체험 기회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스마트축산의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해외 진출 기반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에 갖추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세종=김연세 기자



지역별 선착순
특허공법으로 **즉석**에서 제작 완성하는
AMAS장비 무상지원

내 발의 형태와 아치/족궁에 딱 맞추는

AMAS
즉석맞춤깔창

판매점 모집

키 자세를 바르게 하여
가 쑥~쑥
AMAS 즉석
어린이성장깔창



발은 건강의 바로미터입니다!
이제는 **발**에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통증**에서 해방되세요!!!



극소자본.최상매출.광역상권 www.amas7.net
총판.판매점 문의 1660-1642

거제시, 야구장·배드민턴 등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확충

거제·하청스포츠파크 부지 확장
총 예상사업비, 각 778억·662억
전국 최고 야구 전지훈련장 조성

거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부족한 축구장과 야구장 면수 확충은 물론 배드민턴 전용 경기장, 테니스 전용코트 등 체육시설 인프라를 확충해 동계 전지훈련 유치와 더불어 전국체전 등 전국대회 유치에도 나설 계획이다.

거제시에 따르면 시의 공공체육시설은 246개소이나 대부분 공원 내 운동기구 등 마을체육시설이며,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민 1인당 체육시설 목표면적인 5.73㎡에 미치지 못하는 3.4㎡에 불과하다. 또 거제시는 겨울철 따뜻한 기후 조건과 교통 접근성, 다양한 먹거리·볼거리 등으로 동계 전지훈련의 적격지로 평가받으나, 체육



거제시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장한다. /거제시

시설 인프라가 부족해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거제시는 2011년 조성 당시부터 부지 확장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온 거제스포츠파크 확장 카드를 꺼냈다. 거제스포츠파크 인근부지 약 1만 500㎡를 매입해 축구장 4면(실외 3면, 실내 1면), 테니스코트 9면(실외 5면, 실내 4면) 등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거제시는 2020년에 준공한 하청스

포츠타운과 관련해 인근 부지 12만 3500여㎡를 매입, 야구경기장 2개소 및 실내 야구연습장 1개소, 숙소동 등을 신축함으로써 전국 최고 수준의 야구 전지훈련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규격에 맞춘 야구경기장 2개소 조성 및 실내 야구연습장, 숙소동 등을 완비해 더 적극적으로 야구 전지훈련장 유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거제스포츠파크와 하청스포츠타운을 확장하는데 드는 총 예상 사업비는 토지 보상비를 포함해 거제스포츠파크 확장이 778억원, 하청스포츠타운이 662억원 정도다.

거제시는 앞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없이 밟아 나갈 예정이며,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임에 따라 단계적으로 더 면밀하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향후 전지훈련 특화 시설 설치 사업 등 국도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100년 거제 디자인이라는 큰 틀 안에서 앞으로 공공체육시설의 점진적인 개선과 확충을 해 나갈 계획”이라며 “거제시민의 여가선용 및 체력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거제(경남)=손병호 기자

metrobusan5@metroseoul.co.kr

지역 이모저모

여주시

착한가격업소 환급 행사 진행

여주시(시장 정기명)는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착한가격업소에서 신한·KB국민·NH농협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000원 캐시백을 받을 수 있다.

물가안정과 착한가격업소 활성화를 위해 추진되는 이번 행사는 ▲신한·KB국민카드는 2월 1일부터 29일까지 ▲NH농협카드는 2월 8일부터 3월 8일까지 진행된다.

이용방법은 카드사 홈페이지 또는 어플 이벤트 페이지 응모 후 결제, KB Pay 결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2천 원의 캐시백 혜택이 최대 5회, 만원까지 제공된다.

/여수(전남)=전정신 기자 spirit@

완도군

인구·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

완도군은 오는 3월 26일까지 50일간 지방소멸 및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구·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인구 정책’ 공모 주제는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정주 여건 개선, 워케이션(workation·휴가지 원격 근무) 등 생활 인구 확대, 저출산·고령화 대응, 귀농·귀촌 정착 지원 등이다. ‘청년 정책’ 공모 주제는 청년 일자리(취창업) 창출 방안, 교육, 주거, 문화생활 지원, 청년 인구 유입 방안 등에 대한 내용이다.

아이디어 공모전은 군민뿐만 아니라 완도 발전에 관심 있는 사람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완도(전남)=이대호 기자 eogh7505@

부산국제금융진흥원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도약

부산국제금융진흥원이 글로벌 금융 허브 도시 부산을 국제사회에 적극 알리기 위해 활동을 대폭 늘린다고 6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국제 금융중심지 및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금융중심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홍보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명호 원장은 “부산이 글로벌 금융허브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세계 유수의 국제 금융중심지 핵심 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부산 금융중심지 인지도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이도식 기자

포항시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

포항시는 오는 2월 7일과 8일 양일간 시청 광장에서 설맞이 지역 우수 농특산물 홍보 판촉 행사를 개최한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열리는 행사에는 ▲사과, 배, 단감, 한과 등 제수용품 ▲시금치, 고구마, 버섯, 딸기, 꿀 등 신선제품 ▲떡국떡, 호랑이빵, 젓갈류 등 가공품을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지역 특산물 시식회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매일 2회씩 진행한다.

이와 함께 북구 죽도동에 소재한 ‘포항특산물판매장’에서도 오는 8일까지 30여 개의 품목을 10~20%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포항(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경주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 등 지역기업 신산업 경쟁력 강화 도모

통합관제허브센터 12월 준공 목표
배터리 제품 표준화 인증 등 진행
탄소소재 리사이클링센터 준공 앞둔

경주시가 미래차 전환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경주e-모빌리티 연구단지 구축과 지역 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에 전력투구 하고 있다.

시는 올해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건립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 준공 ▲미래차 첨단소재 성형가공센터 활성화 ▲다양한 기업지원 사업 등에 117억 원을 투입한다. e-모빌리티 배터리 공유스테이션 통합관제허브센터 건립에 85억 원을 들여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에 속도를 낸다.

통합관제허브센터(441억)가 완공

되면 공유스테이션 실증·평가·분석 장비 9종을 구축해 배터리 제품 표준화와 인증 지원은 물론 공유스테이션 기술개발 및 비즈니스 사업 모델 실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내 최초로 탄소소재의 재활용·제품화를 위한 거점기관인 탄소소재 부품 리사이클링센터는 올 4월 준공을 앞두고 있다. 리사이클링센터는 탄소복합재 재활용을 위한 열분해 시스템을 포함한 장비 14종을 구축해 초경량·고강도 소재인 탄소복합재의 재활용 기술을 연구하고 재제조 기술 상용화를 지원한다.

시는 올해 기업 연구개발 및 맞춤형 지원 사업에도 32억 원을 들여 지역 기업의 기술혁신·고도화를 지원한다.

/경주(경북)=이상호 기자 leesh0412@

전남도, 설 연휴 응급환자 대응책 마련

연휴기간 1429개소서 진료

전라남도는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설 연휴 응급진료 종합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연휴 기간인 9일부터 12일까지 도민의 의료서비스 이용 불편 최소화를 위해 도내 병·의원과 약국 등 1429개소(병의원 401·보건기관 281·약국 747)에서 진료를 계속한다.

응급환자 진료를 위해 목포한국병원, 순천 성가톨릭병원을 비롯한 44개 응급의료기관 및 응급의료시설이 24시간 운영한다.

또 섬 지역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도록 닥터헬기도 정상 운영한다.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 재난거점병원(목포한국병원·성가톨릭병원)의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각 시군별 보건소 신속대응반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게 된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전라남도가 설 연휴 응급환자 발생에 대비해 ‘설 연휴 응급진료 종합 대책’을 수립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전남도

전남도와 22개 시군 보건소에서는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해 설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 시간 등 현황을 점검하고 안내한다.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등의 정보 제공은 국번없이 129(보건복지상담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도 콜센터) 등을 이용하면 쉽게 안내받을 수 있다. 응급의료포털, 응급의료정보제공 스마트폰 앱, 도·시군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전남=양수영 기자 ysn6313@

울산시, ‘조류 사파리’ 명소 20개소 운영

명소 안내판·철새 해설판 설치

울산시는 울산으로 찾아온 철새 관광을 위해 ‘조류 사파리 추진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조류 사파리 명소 설치 ▲체형형과 체류형 탐조프로그램 운영 ▲철새 관광상품 홍보 사업으로 추진된다.

‘조류 사파리’는 가족이나 소규모 관광객들이 언제라도 관광할 수 있도록 명촌교하부, 태화강전망대, 삼호철새생태원 등 사파리 명소 20개소를 설치한다.

명소에는 명소 안내판, 철새 해설판이 설치된다. 명소 안내판은 주위 경관을 해치지 않는 크기로 하고, 안



울산시 중구 태화강 둔치 일대에서 5만여마리의 떼까마귀(갈까마귀)가 군무를 펼치고 있다. /뉴스

내 정보도 모니터링을 통해 업데이트해 나간다.

철새 해설판에는 정보무늬(QR코드)를 통해 탐조 가능한 새 정보와 철새를 구별할 수 있는 앱 소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울산=이도식 기자 metrobusan@

대구시, 의료·방역 상황반 10개반 가동

대구시의사·약사회와 비상진료체계

대구광역시시는 설 연휴 기간 의료 공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와 구·군 보건소에 의료·방역 상황반 10개반을 운영하고 대구시의사회, 약사회 등과 협력해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

연휴 기간 지역 21개 응급의료기관에서는 응급실을 평소처럼 24시간 운영하고, 병의원 683개소와 약국 923개소가 문을 연다.

특히 설 명절 당일인 2월 10일에는 대구광역시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명절비상진료 지원사업을 통해

병원급 의료기관 34개소 이외에도 동네의원 30개소, 9개 구·군 보건소가 문을 열어 경증환자가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어 대형병원 응급실 과밀화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들은 연휴 기간 중 문 여는 병의원 및 약국 현황 및 운영시간을 ▲대구시, 구·군 및 응급의료포털 홈페이지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119구급상황관리센터(국번없이 119) ▲달구벌콜센터(국번없이 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대구=김상복 기자 ksb8100@

제로·새로·해외사업 힘입어… 롯데칠성, 연매출 ‘3조 클럽’

지난해 영업이익 2107억 달성
칠성사이다 제로, 밀키스 제로 등
제로 탄산음료 매출 2730억 달해

16년만에 소주 신제품 ‘새로’ 돌풍
소주시장 점유율 20.7%로 4%p ↑

연매출 1조 ‘필리핀 펩시’ 편입
올해 연매출 4조 달성 기대감



새로



PCPPI 필리핀 산토토마스 공장 전경.

/롯데칠성음료

롯데칠성음료가 국내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연매출 3조원 시대를 열었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매출 3조 2247억원, 영업이익 2107억원을 달성했다고 6일 밝혔다. 연매출 3조원은 지난 2011년 2조원 달성 이후 12년만의 성과이자, 2001년 조 단위 매출 시대를 연 후 22년 만의 결실이다.

롯데칠성음료는 성과의 주요 요인을 제로, 새로, 필리핀펩시로 분석했다.

특히 롯데칠성음료는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자는 의미의 ‘헬시 플레저’ 트렌드에 기민하게 대응해 2021년 초 ‘칠성사이다 제로’, ‘펩시 제로슈거’ 출시하며 제로 탄산음료 시장 활성화에 나섰

다. 이후 ‘탐스 제로’, ‘핫식스 제로’, ‘밀키스 제로’ 등 제품군을 확대하며 제로 탄산음료 시장을 주도했다.

실제로 롯데칠성음료의 제로 탄산음료 매출액은 2021년 890억원, 2022년 1885억원, 2023년 2730억원으로 증가했고 자체 탄산음료 내 비중도 2021년 12%에서 2023년 30%로 증가했다.

롯데칠성음료가 ‘처음처럼’ 이후 16년 만에 선보인 소주 ‘새로’의 돌풍도 매출 성과에 기여했다.

새로는 부드러운 맛의 ‘제로 슈거’ 소주로 한국의 도자기와 소주다운 깨끗함을 담아낸 세련된 병 디자인, 매력적

인 구미호 캐릭터와 흥미로운 세계관 등으로 2022년 9월 출시부터 큰 인기를 끌었다.

새로는 출시 7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 1억병을 돌파했고 지난해에는 연매출 1256억원으로 ‘메가 브랜드’ 반열에 올랐다. 롯데칠성음료의 소주시장 점유율은 새로 효과로 2022년 16.6%에서 지난해 20.7%로 약 4%p 증가했다.

롯데칠성음료는 해외 소비자들에게도 새로를 알리기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해 9월 새로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서울 성수동에 오픈한 팝업스토어가 국내 소비자에게 큰 인기를 끌자, 이를 해외

로 확장해 새로 팝업스토어 월드 투어를 실시한 것.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올해 1월 11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의 부이비엔 거리에 2주간 팝업스토어를 운영해 제품 시음은 물론,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새로의 세계관과 소주를 활용한 칵테일 제조 체험에 대한 신선함 등이 베트남 젊은층의 호평을 이끌어냈다.

해외 음료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롯데칠성음료는 지난해 3분기 말 경영권 취득을 통해 필리핀펩시를 종속기업으로 편입시켰다.

롯데칠성음료가 73.6% 지분을 보유

한 필리핀펩시는 필리핀 음료업계 2위 기업으로 연매출이 1조원 규모에 달한다. 롯데칠성음료 연결재무제표에 지난해 4분기부터 필리핀펩시 매출 약 2500억원이 적용되었고 올해는 연간 실적이 온전히 반영되어 연매출 3조원 돌파 이후 1년 만에 4조원 달성도 기대되고 있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최고의 제품으로 고객의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자 하는 노력이 국내외 소비자의 다양한 니즈를 만족시키며 국내 종합음료기업 최초로 매출 3조원 달성의 결과로 이어졌다”며 “올해는 대표 브랜드의 시장 점유율 확대, 맥주 ‘크러시’ 영업 및 마케팅 강화, 글로벌 시장 공략 등을 통해 매출 4조원을 달성하고 식품업계 리딩기업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원선 기자 tree6834@metroseoul.co.kr



롯데칠성 제로음료 라인업

/롯데칠성음료

“67명당 1명 외식사업… 창업뎀 공부해야”

**인터뷰****외식경영 전문가 김 상 진 씨**

고물가와 고금리 상황, 여기에 인건비 상승까지 가중되면서 외식 창업 시장 전망이 올해도 밝지 않다.

통계에 따르면 외식업 창업에서 성공을 거둘 확률은 10%가 채 되지 않는다. 2030 청년 사업가와 ‘인생2막’을 꿈꾸며 외식업에 도전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졌지만 대개는 3년을 넘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경우가 허다하다.

롯데웰푸드(옛 롯데제과)와 TGI프라이데이 등에서 30년 이상 외식 분야에 몸 담았던 외식경영 전문가 김상진 씨는 예비창업자들을 위한 지침서 ‘나는 외식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집필했다. (메트로경제)와 만난 김 작가는 현장에서 쌓아올린 경험과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창업에 앞서 꼭 숙지해야 할 것들을 조언했다. 다음은 김상진 씨와의 일문일답.

-외식 창업을 결심했다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외식업의 현실을 알고 본인 스스로 적합한지 아는 것이다. 큰 투자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10시간 이상 서서 일하는 점, 고객 불만 사항 등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를 견딜 수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이다. 본인의 성격과 처한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해보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으면 창업을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창업을 말리고 싶다. 국내에 외식사업을 하고 있는 사장님들이 67명당 1명 꼴(2022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자료 기준)인데 그만큼 치열한 경쟁에서 기본이 갖춰져 있지 않다면 성



외식경영 전문가 김상진 씨가 메트로경제와의 인터뷰에 답변하고있다. /손진영 기자 son@

**외식업 창업 성공확률 10% 안돼
자기 성격·환경 등 객관적 평가
보완 가능뎀 ‘창업’ 아니면 말려야**

**직원에 주인의식 강요하지 말고
인건비·원가 줄일방법 연구해야**

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외식창업에 적합한 사람인가’를
집필하게 된 동기는.**

“전재산을 투자해 외식 창업에 뛰어들었는데 망하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보았다. 창업에 앞서 공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많은 이들이 알아야 한다는 생각에 책을 쓰게 됐다. 책에는 셀프 진단 툴이 있다. 그 툴에 스스로를 대입해보고 외식창업에 적합한지 점수를 내보는 것이 중요하다. 맛도 맛있지만, 누구보다 부지런해야 하고 자기관리도 철저해야 한다. 매장이 어수선하고 위생에 신경쓰지 않고 식자재가 얼마나 남았는지 수시로 체크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가 그 식당에 가겠는가. 무엇보다 사장

님이 매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게를 열어놓고 아르바이트 직원만 고용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들에게 주인의식을 강요하면 안된다. 그들은 주인이 아니기 때문이다.”

-창업을 위해 공부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것이 있을까.

“점포도 하나의 회사이기 때문에 수익이 나려면 손익계산서를 기본적으로 볼 줄 알아야 하고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부분 나홀로 창업하는 분들은 손익계산서에 대한 이해도가 없다. 메뉴별 원가, 인건비, 임대료, 관리비 등을 파악하고 지출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을 분류해야 한다. 따져보면 결국 인건비와 원가만 통제가능한데 이부분을 어떻게 줄일지 그때부터 연구에 들어가야 한다.”

-무인화 시대다. 식자재도 온라인으로 주문하고, 주문도 키오스크로 받는다. 무인화 도입에 대해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인건비가 오르고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결국 자동화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무조건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대박집을 떠올려보면 로봇이 조리하고, 서빙하는 식당은 없다. 직원도 많고 고객을 직접 대면하는 식당이 많으므로 유명세를 탄다. 고객 눈높이에서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다.”

-창업을 꼭 해야겠다는 초보분들에게 프랜차이즈창업을 권하는 이유는.

“초보 창업자에게 가장 유리한게 프랜차이즈 가맹창업이다. 점포 운영 노하우를 모두 알려주기 때문이다. 메뉴 조리 교육부터, 점포 손익관리까지 다 가르쳐준다. 식자재 가격도 할 필요가 없다. 그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겠지만, 전혀 모른 상태에서 나홀로 창업해서 망하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신원선 기자

하이트진로, 창립 100주년 日 위스키 출시

‘후지산로쿠 시그니처 블렌드’

올해 창립 100주년을 맞이하는 종합주류회사 하이트진로가 일본산 프리미엄 위스키 ‘후지산로쿠 시그니처 블렌드’를 출시한다고 6일 밝혔다.

‘후지산로쿠 시그니처 블렌드’는 기린그룹이 1973년 설립한 후지 고텐바 증류소의 대표 프리미엄 위스키다. 일본에서는 유일하게 단일 증류소에서 보리맥아를 주재료로 하는 몰트 원액과 그 외 곡물을 주재료로 사용하는 그레인(grain) 원액의 제조가 동시에 가능한 곳이다.

특히 후지 고텐바 증류소는 몰트, 그레인 각 원액에서 최적의 숙성 시기를 파악해 엄선한 후 절묘한 밸런스로 블렌딩 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블렌딩은 세계적 위스키 어워드인 ‘아이콘스 오브 위스키 2017’에서 마스터블랜더(세

계 최우수 블렌더)를 수상한 다나카 쇼타가 맡고 있다.

이번에 첫 선을 보이는 ‘후지산로쿠 시그니처 블렌드’는 700ml 용량에 알코올 도수는 50도이다. 배, 파인애플, 오렌지 등을 연상시키는 과실향이 특징이며 구운과자, 흑설탕과 같은 달콤하고 고소한 풍미가 복합적으로 느껴지는 맛이다. 풍부한 맛과 향 덕분에 스트레이트는 물론 최근 유행하는 하이볼로 즐겨도 고급스러운 맛을 유지한다.

‘후지산로쿠 시그니처 블렌드’는 2월 2주차부터 유통시장을 시작으로 가정시장으로 판매영역을 넓혀갈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강남·홍대입구역 ‘축카스 전광판’ 이벤트

오비맥주, 기념메시지 순차적 송출

오비맥주카스가 도심대형 전광판을 통해 많은 이들과 축하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축카스 전광판’ 이벤트를 시작한다.

오비맥주는 생일, 졸업, 승진 등 기념이 필요한 순간 및 모든 평범한 일상 속에서 카스와 함께 특별한 순간을 나누길 바란다는 취지로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지난 1월 30일까지 카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메시지를 접수 받았으며, 선정된 개인의 축하 메시지는 2월 한 달간 강남역과 홍대입구역의 대형 전광판을 통해 공개된다. ‘축카스 전광판’ 이벤트

는 개인 맞춤형 메시지를 담을 수 있는 뿐만 아니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어, 2주 동안 4000명 이상의 소비자가 응모해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이 중 카스는 추첨을 통해 총 114개의 사연을 선정했으며, 각 축하 메시지는 접수 시 선택한 2월 날짜와 장소에서 순차적으로 송출된다.

한편, 카스는 ‘축카스 캠페인’을 전개하며 비비의 인공지능(AI) 목소리가 담긴 축하 영상을 제작할 수 있는 ‘축카스송’ 이벤트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 중이며 모바일 게임 애플리케이션 ‘텐텐 오락실’과 연동한 ‘축카스송’ 피아노 게임도 선보였다.

/신원선 기자

경기남부 유일 5성급...자연·꿀벌과 함께 ‘풀서비스’ 누려요

Q 르포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분당·판교 사이, 오피스 단지 밀집 지하 4층~지상 21층... 602개 객실 체크인 순간부터 환대 제공 방침 통창뷰 객실·화장실, 감성 욕조까지 옥상서 채취한 꿀로 음식메뉴 구성

지난달 말 경기 남부 유일한 5성급 호텔인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를 방문했다. 이곳은 한국에 진출한 지 40주년을 맞이한 힐튼의 명성답게 자연을 토대로 한 인테리어가 돋보였다.

‘더블트리’라는 호텔 이름처럼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 배치된 나무, 식물, 화분, 꽃들이 눈에 띄었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은 호텔 체인 힐튼의 22개 브랜드 중 ‘풀서비스’ 브랜드에 속한다. 풀서비스 호텔이란 부대 시설 기준에 따라 연회장, 레스토랑 2곳 이상,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등을 고루 갖춘 곳을 의미한다.

올해 4월 문을 연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는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로에 소재하고 있다. 분당과 판교를 잇는 길목에 소재해 오피스 단지외도 밀접한 게 특징이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는 지하 4층부터 지상 21층까지 432개의 호텔 객실과 170개의 레지던스를 포함한 총 602개의 객실로 구성돼있다.

호텔 로비서 체크인을 하자 따뜻한 쿠키가 제공됐다. 힐튼의 섬세함에 호



더블트리 바이 호텔 외부.

텔 첫 인상부터 따뜻함이 느껴졌다.

‘체크인을 하는 모든 고객에게 제공하는 웰컴 쿠키나’는 기자의 질문에 호텔 관계자는 “체크인을 하는 순간부터 환대를 제공하겠다는 호텔의 방침이다”고 답했다.

쿠키에도 스토리가 담겨 있다. 2019년 11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구워져 ‘우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쿠키’라는 타이틀을 획득한 특별한 쿠키라고 한다.

호텔의 객실에는 앞에 통창을 통해 뽕뽕린 경부고속도로 뷰가 인상적이었다.

객실 내 가장 인상깊었던 건 단연 화장실이었다. 화장실은 통창에 감성적인 욕조가 돋보였다. 화장실의 어메니티는 영국브랜드 ‘크래트리 앤 에블린’의 샤워젤, 샴푸, 컨디셔너가 배치돼 있었다. 모든 어메니티는 디스펜서 형태로 환경을 생각하는 힐튼의 정교함에 다시 한번 놀랐다.



통창과 함께 어우러진 감성적인 욕조.

호텔의 부대시설도 즐길거리가 많았다. 실내수영장, 피트니스센터, 골프연습시설까지 갖췄다. 스크린 골프는 1개의 룸으로 이뤄졌고 실내 골프장의 경우는 총 6개의 타석과 1개의 강습용 타석으로 배치됐다.

2층 호텔과 레지던스호텔이 만나는 곳에 위치한 피트니스센터는 150평 규모로 수 십가지의 기구 모두 최상급의 브랜드라는 점에서 놀라움을 자아냈다. 야외에는 최대 250명이 수용 가능한 552평 규모의 연회 공간이자 정원 ‘더 테라스’가 자리해 있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의 시그니처 레스토랑&루트 탑 닉스를 방문했다. 21층에 위치한 닉스는 입구부터 세련된 컬러의 벽과 큰 문이 우아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입구에 들어서자 마자 높은 층고에 한번 놀라고 수백가지의 위스키, 와인,

럼 등의 술병들로 가득 차 있는 바의 웅장함에 두번 놀랐다.

이곳의 메뉴는 ‘시저샐러드와 국내산 베이컨 스테이크, 통영굴찜, 성계알 타리아텔레, 와규안심스테이크, 랍스터 구이’ ‘허니밤’ ‘꿀벌 바바로아즈’ 등 하나하나에 정성이 느껴졌다.

꿀이 베이스로 된 메뉴가 많은 것에 대해 관계자는 “호텔 옥상에서 양봉장을 하고 있다. 꿀을 직접 채취해 메뉴를 구성한 점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실제 20만 마리의 꿀벌이 레지던스 빌딩 옥상에 위치한 ‘루프톱 비 팜’이라는 양봉장에서 꿀을 만들어 내고 있었다.

‘궁금한 건 못참지’란 생각을 하며 옥상에 위치한 양봉장을 방문했다.

도심 한 가운데 양봉장이라니 놀라웠다. 실제 보호종인 벌꿀들이 눈앞에 수십마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다. 벌꿀 관련 메뉴들의 향이 유달리 진했던 이유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는 힐튼의 글로벌 ESG 프로그램인 ‘목적’이 있는 여행(Travel with Purpose)’의 일환으로 꿀벌들에게 안전한 보금자리를 제공해 건강한 생태계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호텔 1층에 위치한 인터내셔널 뷔페 ‘데메테르’에서는 직접 채취한 꿀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하고 있었다.

더블트리 바이 힐튼의 투숙율은 주말에는 80~9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관광객은 물론 국내 호캉스족들까지 두루 찾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텔 관계자는 “더블트리 바이 힐튼은 판교지역 주민뿐 아니라 고속도로와 밀접해 있어 여행객들의 방문이 두드러진다. 호텔의 가장 큰 목적은 여행객들이 편안하고 친숙하게 즐기는 것이다. 더블 트리 바이 힐튼은 여기에 따뜻함까지 더했다”며 “최근 경기 남부 최초로 5성급 호텔 등급을 획득한 것을 계기로 마케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글·사진=최빛나 기자 vitna@metroseoul.co.kr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양봉 사진.

CJ올리브영 ‘100억 클럽’, 中企 51% 차지

100억클럽 브랜드 수, 전년比 30%↑
매출 상위 10대 브랜드 중 7곳 中企

CJ올리브영이 국내 신생 뷰티 브랜드와 중소기업 브랜드를 육성하는 ‘K뷰티 인큐베이터’임을 입증했다.

CJ올리브영은 입점 브랜드 중 지난 2023년 100억원 이상의 연 매출을 기록한 ‘100억 클럽’에 해당하는 브랜드 수가 전년 동기 대비 30% 늘었다고 6일 밝혔다.

리쥬란, 메디필 등 기초 화장품부터 색조화장품, 남성화장품, 헤어 및 바디 제품까지 다양한 브랜드가 ‘100억 클럽’에 새롭게 이름을 올렸다.

무엇보다 ‘100억 클럽’에서 국내 중소기업 브랜드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2020년 39%에서 2023년 51%로 크게 증가했다.

이와 함께 중소브랜드들이 올리브영에서 올리는 매출 규모도 커졌다. 매출 상위 10대 브랜드 중 국내 중소브랜드는 ▲넵버즈인 ▲닥터지 ▲라운드랩 ▲로맨 ▲메디힐 ▲클리오 ▲토리든 등 7개다.

중소K뷰티 브랜드들이 CJ올리브영의 채널 경쟁력을 기반으로 성장했다는 것이 올리브영의 설명이다.

실제로 CJ올리브영은 전국 1300여 개에 이르는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CJ올리브영 대표 매장 전경.

/CJ올리브영

온라인에서 ‘오늘드림’ 배송 서비스 등을 갖췄다. 또 해마다 3월, 6월, 9월, 12월 최대 할인 행사인 ‘올영세일’을 비롯한 계절별 캠페인을 전개해 K뷰티를 이끌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화장품 업계에서 올리브영 입점은 인지도 제고, 매출 증진, 글로벌 시장 진출 등을 위한 등용문이 되고 있다.

CJ올리브영에 따르면 ‘올리브영 클린뷰티’ 브랜드로 자리매김한 ‘토리든’의 경우 2022년 처음 ‘100억 클럽’에 입성한 데 이어 지난 2023년 올리브영에서의 매출이 4배 늘었다.

2021년 입점한 ‘넵버즈인’ 또한 지난 2023년 한 해에만 매출 규모가 3배 이상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 2023년 처음으로 올리브

영에서 연 매출 1000억원을 기록한 중소기업 브랜드도 등장했다. 색조 브랜드 ‘클리오’와 선크림으로 유명한 ‘라운드랩’이다.

CJ올리브영은 올해도 K뷰티 산업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특히 CJ올리브영은 올해부터 3년간 총 3000억원 가량을 투입하는 상생경영안을 시행한다고 최근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브랜드와 상품 기획, 연구개발, 영업·마케팅 등 전 과정에서 단계별로 신진 브랜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셀트리온, 먹는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가시화

우스테키누맙, 임상1상 긍정적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개발을 넘어 ‘차세대 치료제 확보’라는 목표를 가시화하고 있다.

셀트리온은 미국 라니 테라퓨틱스가 경구형 우스테키누맙(개발명: RT-111)의 임상 1상에서 긍정적인 톱라인 결과를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라니 테라퓨틱스와 협의해 글로벌 개발 및 판매 우선 협상권 행사 절차에 돌입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1월 라니 테라퓨틱스와 경구형 우스테키누맙 개발을 위한 라이선스 및 공급 계약을 체결해 임상 1상 결과에 따라 글로벌 개발 및 판매에 대한 우선 협상권을 확보한 바 있다. RT-111은 셀트

리온의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CT-P43을 경구형으로 개발 중인 제품이다.

호주에서 진행한 이번 임상에서는 건강한 성인 55명을 대상으로 RT-111의 약동학 및 안전성을 확인했다. 임상 결과 경구형인 RT-111은 우스테키누맙 피하주사(SC) 제형 대비 84%의 높은 생체이용률을 나타내 유사한 수준의 약동학을 입증했다.

셀트리온은 CT-P43을 경구형으로 개발하면 환자 투여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글로벌 우스테키누맙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CT-P43의 오리지널 의약품인 인터루킨(IL)-12, 23 억제제 ‘스텔라라’는 판상형 건선 등의 적응증에 사용된다.

/이청하 기자

한미약품, 재미한인 제약인들과 교류

재미한인 제약인협회 심포지엄 후원

한미약품이 미국 샌프란시스코 일대 제약·바이오 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 과학자들과의 교류에 나섰다.

한미약품은 최근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재미한인 제약인협회 샌프란시스코 지부 심포지엄’에 후원사로 참

여했다고 6일 밝혔다.

재미한인 제약인협회는 미국 제약·바이오 업계에 종사하는 한국인 과학자들로 구성된 비영리단체로, 샌프란시스코 지부는 매년 1월 JPMorgan 헬스케어 컨퍼런스 개최 시기에 맞춰 정보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행사를 열고 있다.

/이청하 기자



BIOM CERA *barrier*
CREAM

힘센 장벽 짝 찬 보습크림

earfit

@earfit_official | www.earfit.co.kr

LG AI연구원 “윤리적·책임감 있는 AI 규범 선도”

‘유네스코 AI 윤리 포럼’ 참가
AI 윤리 기구 비즈니스 카운실 가입

LG AI연구원이 전세계와 AI 윤리를 함께 논의했다.

LG AI연구원은 5일(현지시간) 슬로베니아에서 열리는 ‘유네스코 AI 윤리 글로벌 포럼(Global Forum on the Ethics of AI)’에 참가했다고 6일 밝혔다. 이 행사는 국제 표준 ‘AI 윤리 권고’ 이행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로, 두번째 열린 이번 행사에서는 ‘변화하는 AI 거버넌스의 지형’을 주제로 했다.

LG AI연구원은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동석했다. 유네스코 194개 회원국 과학기술 담당 장관들과 세계경제포럼 AI 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LG AI연구원 김유철 전략부문장이 AI 시스템의 생애주기별 LG만의 위험 관리 체계 구축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빅테크를 비롯해 유네스코 회원국 및 국제기구 인사들과 AI 윤리 및 거버넌스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논의



슬로베니아에서 열린 포럼에서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유네스코와 민간 부문의 약속 담은 AI 윤리 공동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다.

를 진행했다.

LG AI연구원은 이번 포럼에서 민간 부문의 AI 윤리 기구인 ‘유네스코 비즈니스 카운실(Business Council)’에도 가입했다. 공동의장사인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와 텔레포니카(Telefonica)를 비롯해 세일스포스(Salesforce),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 등 글로벌 기업 중심으로 유네스코의 AI 윤리 권고 이행을 촉진하며, AI 윤리영향 평가 도구를 개발하고 운영 우수 사례를 확산하는 플랫폼 역할을 한다.

오드레 아줄레(Audrey Azoulay) 유네스코 사무총장은 포럼 개막 행사에서 비즈니스 카운실 및 포럼 참여 기업과 함께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민간 부문의 약속을 담은 ‘AI 윤리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LG AI연구원은 국제사회에 연구원의 AI 윤리 실천 선도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한편, 국내 AI 업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더 나아가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LG AI연구원은 지난해 11월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유네스코와 AI 윤리 실행 및 확산을 위해 손을 잡으며, 국제사회 AI 윤리 규범 합의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 수행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바 있다. 상반기 중 유네스코와 함께 ‘전문가를 위한 AI 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추진하는 등 향후 국제 AI 윤리 활동을 함께하며 글로벌 AI 윤리 리더십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LG 관계자는 “AI 기술 혁신은 인류에게 전례 없는 기회로 다가오고 있지만, 부작용과 위험성 해결이 주요 과제가 되고 있다”며, “국제사회가 AI 윤리 기준, 국제 규범과 같은 안전 장치 마련에 공감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LG도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는 AI를 만들기 위한 집단지성 발현에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웅 기자 juk@metroseoul.co.kr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에이스침대, 1인용·2인용 베스트셀러 침대 선택

에이스침대가 신학기를 앞두고 침대를 구매하는 고객에게 풍성한 혜택을 제공하는 온라인 기획전을 실시한다. 6일 에이스침대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슬기로운 새학기 생활, 바른 잠자기 with ACE”라는 컨셉으로 이달 29일까지 에이스침대물을 포함한 국내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된다. /에이스침대



BNK부산은행, 영상 발전기금 4천만원 전달

BNK부산은행은 지난 5일 부산 영상산업센터에서 사단법인 부산영상위원회에 지역 영상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기금 4000만원을 전달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전달한 후원금은 영화·영상 제작시스템 체계 구축 등 지역 영상산업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BNK부산은행

현대차, 뉴욕 휘트니미술관 10년 후원

휘트니비엔날레 공식 후원사
매년 ‘현대 테라스 커미션’ 전시

현대자동차가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과 10년 장기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

현대차는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격년으로 진행되는 휘트니 미술관 대표 프로그램인 ‘휘트니 비엔날레’를 후원하고, 미술관 야외 전시장에서 진행될 신규 전시 프로그램 ‘현대 테라스 커미션’을 매년 선보일 계획이다라고 6일 밝혔다.

현대차는 ‘휘트니 비엔날레’의 공식 후원사로 참여하며 2024년부터 2032년까지 총 5번의 비엔날레를 지원한다. 올해로 81회째를 맞는 휘트니 비엔날레는 ‘Whitney Biennial 2024: Even Better Than the Real



뉴욕 하이라인에서 본 휘트니 미술관. /현대차

Thing’을 주제로 오는 3월 20일부터 약 5개월간 개최될 예정이다.

또 ‘현대 테라스 커미션’을 통해 휘트니 미술관 5층 야외 테라스에 위치한 전시장에서 매년 조각, 퍼포먼스, 멀티미디어 등 다양한 장르의 새로운 대형 설치 작품을 선보인다.

/양성운 기자 ysw@

삼성 “반려동물과 갤럭시S24 체험하세요”

‘갤럭시 스튜디오 Pet’ 운영
반려견 프로필 사진도 촬영

반려동물과 갤럭시S24 시리즈를 체험해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된다. 삼성전자는 오는 3월 10일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스타벅스더북한강R점에 ‘갤럭시 스튜디오 Pet’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공간은 국내 최초 ‘펫 프렌들리’로 꾸민 스타벅스 더북한강R점에서 펫 맞춤형 놀이공간과 포토 스팟을 활용해 갤럭시S24 기능을 직접 사용해 볼 수 있도록 꾸몄다.

‘어질리티&트랙존’에서는 장애



갤럭시 스튜디오 Pet.

물을 넘고 트랙을 달리는 역동적인 반려동물의 모습을 ‘싱글 데이크’로 촬영해 AI가 생성하는 베스트 포토, 하이라이트 영상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인스턴트 슬로모’ 기능을 활용해 반려동물의 사랑스러운 순간을 생생하면서도 디테일하게 감상할 수도 있다. ‘프로필 포토 부스’에서는 펫도 인식하는 ‘갤럭시 S24 시리즈’의 인물 모드 기능으로 반려견의 프로필 사진을 촬영할 수 있다. ‘생성형 편집’ 기능을 활용해 보다 완벽한 ‘견생샷’을 완성해준다.

반려동물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AI기능으로 수정하고, 인화까지 할 수 있는 ‘생성형 편집’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갤럭시 S24 시리즈’는 AI가 사진을 분석해 맞춤형 편집 도구를 제안하고, 사진이 기울거나 배경 화면이 잘려나간 경우 부족한 이미지를 메꾸며 자연스러운 사진을 완성해준다.

한편 삼성전자는 다양한 브랜드와 함께 갤럭시 스튜디오를 운영하며 특화된 공간에서 갤럭시 시리즈를 체험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김재웅 기자

신세계까사, 새해 맞이 신제품 사은 행사

신세계까사(SHINSEGAE CAS A)가 갑진년 새해를 맞아 2월 말까지 까사미아 신제품 특별 사은 행사를 진행한다. 6일 신세계까사에 따르면 행사 기간 신학기 자녀 방 가구를 패키지로 구매 시 사은품을 증정

한다. 까사미아 학생가구 시리즈 ‘뉴아벨’, ‘노엘(NOEL)’, ‘노아(Noa)’의 책상·침대 프레임·데스크 옵션 등을 함께 구매하면 금액별 최대 12만원 상당 신세계상품권을 증정한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부음

◆국세청 ◇부이사관 승진 △국세청 역외정보담당관 김진우 △국세청 조사기획과장 박근재 △국세청 장려세제과장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 조사1국장 오상휴 △국세청 강영진
◆인사혁신처 ◇과장급 전보 △노사협력담당관 이현욱 △적극행정과장 권영아

◆OK금융그룹 <신규임원 선임> ◇이사대우 △OK홀딩스 전략기획부 담당임원 오민식 <승진>
▲정병곤씨 별세, 김홍중(생명보험협회 수석사무)씨 병부상 = 6일, 은평성모장례식장 2호실, 발인 8일 오전 10시30분, 장지 서울시립소화원. 02-2030-4444.

농심, 백혈병소아암 환아에 2억 기부

현금·백산수 등 지원

농심이 올해도 백혈병소아암 환아 지원을 이어간다. 농심은 지난 5일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와 후원금 전달식을 갖고 연간 총 2억원 상당의 현금과 백산수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전달식을 통해 농심은 현금 1억원

을 먼저 기부했다. 이 기부금은 세계 소아암의 날(2월 15일)을 맞아 환아들의 꿈과 희망을 담은 그림 공모전, 환아의 생일과 골수이식 기념일에 선물을 전하는 심심키트, 환아의 완치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걷는 심심트레킹 등 다양한 후원사업에 쓰일 예정이다.

/신원선 기자 tree6834@

하나증권, 거래수수료 수익금 기부

하나증권은 기부를 통해 손님과 회사가 함께 참여하는 ‘함께 만드는 착한투자’ 기부 동행 프로젝트를 실시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하나증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기부해 손님은 금융투자를 하며 자연스럽게 기부활동 참여가 가능하다. 오는 14일을 시작으로 올해 총 3일간 해외주식, 국내과생상품, 해외과생상품 거래 수수료 수익금이 사회 취약계층 지원 활동을 위한 기부금으로 쓰이게 된다. 기부활동은 상반기와 하반기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



유한양행

2024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해피홈 HAPPYHOME® 파워캡슐 올인원

세척·탈취·유연·향기
빨래를 알아서 한 번에!



유한양행
버들장터
바로가기

설 명절 선물세트 구매는
유한양행 자사몰 버들장터에서



신도시 반성론



이 규정의 전원에 산다

30여년 전, 경기도 분당 등 1기신도시를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했다. 지금 그때 지은 아파트가 사라지는 광경을 목도해 나가야 할 심정도 복잡하다. 당시 완료된 신도시사업에 대해 수많은 학자, 전문가는 물론 국민들도 참담했던 것 같다. 200만호 건설, 삼시간에 신도시 몇개를 똑딱 지어낼 수 있는, 군사작전 같은 한국적 상황마저 아파했다. 그래서 나온 시대의 거대담론이 '신도시 반성론'이었다. 당시 라멘조 방식의 아파트 공법상 수명이 30여년이어서 신도시의 장래를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신도시를 허물고 신도시의 신도시를 새로 지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반성론에 대한 해답이라고 할 수 있는 건 없었다. 그저 한 세상을 휩쓸고 간 담론일 뿐, 여지껏 실패에서 배우지 못한 것과 다름 아니다. 제 2, 3기 신도시가 건설되고 있다. 다만 광역교통대책을 함께 수립하는 정도로 발전했다고나 할까.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도 볼 수 없는 신도시 재건축이라는 초유의 실험이 진행될 판이다. 새로운 실험으로 발생할 문제, 고통과 그로 인한 왜곡 등의 목소리는 완전히 사라진 채 시작됐다는 점에서 30여년 전처럼 참담하다. 바로 정부가 내놓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안'이다.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와 노후 산업단지 등 전국 108개 지구, 215만가구가 적용 대상이다.

우선 정비안의 핵심을 보면 재건축할 경우 허용 용적률이 750%(최고 75층)까지 가능해졌다. 기존 도시 위에 두배나 많은 아파트가 얹어진다는 얘기다. 지금의 신도시는 30여년 전 20~30층, 200%내외의 용적률로 지어졌다. 그런데 같은 땅에다 75층 규모로 750%를 적용한다고 생각해보라. 이게 말이 되는가? 물론 일률적으로 75층을 신축하지 않는다고 해도 분당이 지금의 두배 높이가 된다면 살겠는가. 노후 도시정비안이 나오고 나서 분당 등에 리모델링을 추진하던 단지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용적률을 750%까지 준다는데 리모델링을 할까. 일단 안대라면 재건축 사업성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양호해졌다. 그래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대부분

재건축으로 선의할 게 분명하다. 재건축할 경우 3종 주거지역에 속한 아파트가 종상향으로 준주거지역이 되고, 특별법 인센티브까지 받으면 최대 750%까지 적용받게 된다.

반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서는 리모델링에도 특례를 적용해 사업 전 가구 수의 최대 21%까지는 늘릴 수 있다. 현행 주택법상 리모델링 시 15% 이내에서 가구수를 늘릴 수 있고, 여기에 특별법에서 140% 특례도 적용된다. 만약 1000가구 아파트 단지가 리모델링 특례를 최대로 적용받으면 리모델링 후 1210가구로 탈바꿈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런 건 약과다. 아예 리모델링을 원천 봉쇄하는거나 마찬가지다. 특별법을 보면 리모델링은 안전진단을 면제받지 못한다. 리모델링의 경우 골조를 그대로 남겨둔 채 사업을 실시하기 때문에 충분히 튼튼한지를 검사하자는 거다.

30여년 전 신도시사업 완료 후 시대의
담론이었던 ‘신도시 반성론’이 허무하다.
이제 누군가가 ‘신도시 재건축 반성론’을
준비하며 참담해할 지도 모르겠다.

/peace@metroseoul.co.kr

영화관이 살아나야 영화산업 생태계도 살아난다



신 원 선
〈유통&라이프부〉

코로나19 이후 벼랑 끝에 몰린 한국영
화산업에 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영화관을 찾는 관객 수가 현저히 줄어든 상황에서 이 수치가 회복되지 않으면 영화산업 생태계는 되살아나기 힘든 것이 사실이다.

2019년만 해도 영화관에는 역대 최대 관객인 2억2000만명이 방문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코로나19를 기점으로 확 꺾였다. 2020년에는 5952명, 2021년에는 6053만명이 영화관을 찾았다. 여기에 영화관람료가 오르고 동시에 온라인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가 인기를 끌면서 ‘굳이 영화관을 가야하나’라는 생각이 사람들

사이에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지난해에는 1억2513만명이 영화관을 방문했다. 관객 수가 늘었지만, 2019년과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객수다.

문제는 국내 영화산업이 전체 매출의 80%를 영화관에 의존하는 영화관 중심의 산업이라는 점이다. 개봉작이 영화관에서 관객을 만나지 못하면서 투자사는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신규 투자 및 제작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는 제작사의 차기작 개발에 영향을 미친다.

영화 관람료당 3%를 징수해 영화진흥
명목으로 적립하는 영화 발전기금도 고갈
직전이다. OTT를 통해 공개되는 작품 수
도 급증한데다 영화관에서 개봉하고 얼마
안가 IPTV로 볼 수 있으니 더더욱 관객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문체부는 국내영화산업 위기극복을 위해 지난해 9월부터 영화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홀드백'과 '미개봉작 지원' 등

영화산업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현안을 논의해오고 있다. 홀드백은 OTT 등에서 영화를 보기 전 영화관에 먼저 상영하는 특정 기간을 말한다.

개봉 영화가 통상 1~3개월, 짧게는 2~3주만에 IPTV와 OTT 등에 풀리거나 극장 상영 중 IPTV 등에서 '동시 상영'하는 일도 비밀비재하다. 극장 개봉을 안 거치고 OTT로 직행하는 영화도 늘었다.

홀덤퍅 규제라도 정착되어야 악순환 고리를 끊어낼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프랑스는 영화관에 상영된 작품을 다른 플랫폼에서 상영할 때까지 최소 15개월을 기다리도록 법으로 규정했다. 프랑스는 이를 통해 자국 영화관을 보호할 수 있다고 봤다.

많은 수의 관객이 영화관을 찾고 이 수익이 투자사와 제작사로 흘러 들어가 더 좋은 차기작을 낼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지려면 홀드백은 필수 조건이다.

/tree6834@metroseoul.co.kr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생각을 늘린다 스도쿠365

문제풀이: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개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3		9	2			7	8
4			6				5	9
7				6				3
		1	3		9	8		
	9			8				2
	4	6			2			5
9	7			5	1			4

문제출제: 손호성

사료로 고난도의 퍼즐과정을 즐겨주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9	4	8	1	9	8	2	6	7
6	2	7	9	8	4	8	1	9
9	8	1	2	6	7	9	4	8
2	9	4	7	8	1	8	6	9
7	9	8	6	4	8	1	9	2
1	8	6	9	9	2	4	8	7
8	6	9	8	1	9	7	2	4
1	2	8	7	9	6	9	8	7
8	7	9	2	4	6	9	8	1

7	4	9	6	2	9	1	8	8
2	8	9	6	8	7	1	8	4
1	6	8	4	8	9	2	7	9
9	8	7	8	1	2	6	4	9
1	4	1	6	7	9	9	8	8
8	9	2	8	4	6	9	1	7
6	2	4	1	7	8	9	9	8
8	9	8	9	6	4	7	2	1
5	7	1	9	2	8	4	6	8

김상회의 四季

등용문



등용문이라는 말은 용문에 오른다는 뜻이다. 용문은 중국 황하 상류에 있는 협곡이다. 이 협곡은 물살이 거세어서 힘 좋은 물고기도 오르기 힘들다고 한다. 그런 거센 물살을 거슬러 협곡에 오르는 잉어는 용이 되었다는 전설이 있다. 그 전설에서 등용문은 들어가기 힘든 문을 이르는 말이 되었다. 등용문에 올랐다고 하면 힘든 관문을 통과해서 출세하게 되었다는 뜻으로 용이 되었다는 말과 같은 의미이다. 옛날에 선비들이 출세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관문이 과거시험이었다.

과거에 급제하던 관리가 되고 출셋길이 열렸다. 선비들에게는 과거 시험이 등용문이었던 셈이다. 용은 누구도 본 적 없는 상상 속의 동물이다. 궁궐에서는 권력의 상징이었고 민간에서는 엄청난 힘을 지닌 신 같은 존재였다. 사람들이 용을 신성시했던 것은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라는 이미지였기 때문이다. 일반 사람들도 용이 되고 싶어 하지만 정말로 용처럼 엄청난 존재가 되고 싶다는 건 아니다. 지금 상태를 넘어서 더 나은 단계로 도약하고 싶다는 소망이다.

승진해서 급이 높아지거나 자산을 크게 늘려서 예전과 달라지고 싶다는 소망을 용이 되고 싶다는 방식으로 표현한다. 사람들은 더 나은 삶을 바란다. 그바람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는 게 응용문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용문에 오른다는 건 지금과 다른 세계로 들어서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응용문에 오르기를 원한다. 용이 승천하는 꿈을 꾸면 명예를 얻고 존경을 받으며 재물이 들어온다고 한다. 그중의 하나만 얻어도 기쁨으로 마음이 가득 찰 듯하다. 소망을 지닌 사람들은 갑진년을 한 해 청룡이 솟아오르듯 도약할 것이다. 응용문에 올라 원하는 좋은 운세의 기운이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일 년이 될 것을 확신한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02) 533-8877 / www.saju4000.com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 02)721-9800, FAX: 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김승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0206	2002년5월28일 제5368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472호

출생부터 육아·주거까지… 촘촘한 지원으로 저출생 대응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1.8조 투입
둘째 출산시 첫째 돌봄지원 시작
맞벌이 위한 ‘아침 돌봄센터’ 운영
서울키즈 오케이존 700개소 확충

서울시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부터 돌봄, 주거지원까지 종합적인 대책을 담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기존 ‘엄마야 행복 프로젝트’의 확장판으로 국비·구비 포함 총 1조7775억원이 투입된다. 전년도 관련 예산(1조5002억원)보다 2773억원 늘어난다.

우선 시는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 신혼부부, 소중한 생명 탄생을 준비하는 임신부와 출산가정을 위한 지원책을 강화했다.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지원은 6개월 거주 요건을 폐지한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에게는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서울시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예비양육자 응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
공공시설 활용 결혼식

임산부 응원

임산부 교통비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지원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돌봄·주거인프라

서울형 아이돌봄비지원
모아어린이집등보육질제고
신혼·양육친화 주거 지원

예비양육자 응원

서울형 키즈카페 조성
일생활균형 기업문화 확산
서울 우먼업 프로젝트

자료/서울시

지원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으로 가입된다.

이와 함께 시는 양육자가 체감할 수 있는 촘촘한 돌봄체계 구축에 나선다. ‘둘째출산시 첫째아이돌봄지원사업’을 새롭게 시작하고,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한다.

맞벌이 부모의 출퇴근으로 이른 아침 틈새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해 권역별 거점에 아이를 맡기고 가면 돌봄과 등하교를 지원하는 ‘서울형 아침 돌봄 키움센터’를 오는 4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더 많은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독점자별례, 보라매공원 등에 새롭게 문을 열어 연말까

지 130개소로 확대한다. ‘퇴근길 가정 행복 도시락·밀키트 할인지원’ 사업은 이용할 수 있는 업체 수를 3개에서 7개로 늘린다.

‘서울키즈(Kids) 오케이존’은 연내 700개소까지 확충한다. 안전사고 발생에 따른 손해비용을 보장하는 보험상품을 개발해 참여 업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아이를 배려하는 사회분위기를 확산 시켜나갈 계획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올 하반기 누구나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 전담 어린이집’ 도입을 추진하고,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토·일요일에 갈 수 있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교육부, 다문화·탈북학생 안정적 성장 지원

멘토링 사업예산 등 규모 확대
대학생 멘토 근로장학금 인상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다문화 학생과 탈북학생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 규모를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교육부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 4만6954명에서 2018년 12만2212명, 작년 18만1178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본 사업은 대학(원)생이 다문화·탈북 학생의 멘토가 돼 아이들과 함께 공부하고 올바르게 자라날 수 있도록 지도하는 내용으로 추진된다. 멘토들은 근로장학금을 지원받는다.

교육부는 올해 사업 예산을 156억원

으로, 멘토링 활동 가능 시간을 104만 시간으로 늘린다. 또 대학(원)생들이 멘토링 활동을 통해 학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장학금도 인상한다. 도시의 경우 시간당 장학금이 기존 1만25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농·어촌은 종전 1만5000원에서 1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2024학년도 다문화·탈북학생 멘토링 사업의 멘토·멘티 선발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http://www.kosaf.go.kr>)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육부는 모든 학생이 이주배경에 상관 없이 자기 잠재력을 키워 우리 사회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인베스트서울, 외국인투자 150억달러 유치

금융·보험업, 신규 투자 역대 최대치
중동지역 중심 네트워크 구축·확장

서울시는 투자유치 전담기구 ‘인베스트서울’이 지난해 약 150억달러 규모의 외국인직접투자(FDI)를 유치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6일 밝혔다.

작년 인베스트서울의 FDI 금액은 147억달러로, 출범 당시인 2022년 107억3000만달러 대비 37% 증가했다. 특히 금융·보험업(86억5000만달러)과 신규 투자(56억달러)에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잠재력을 가진 매력적인 글로벌 투자처로서 서울이 주목받고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유럽 출장에서 덴마크 코펜하겐을 찾아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베스타스사와 아시아 태평양 지역본부 이전을 위

한 상호협조 양해각서를 체결해 베스타스사의 아태 지역본부를 서울로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

인베스트서울은 창업 생태계에 관심이 많은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확장에 나섰다. 작년 10월 아부다비 스타트업 생태계의 중심인 Hub71(허브71),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금융허브인 DIFC(두바이국제금융센터) 등 주요 기관과 연이어서 MOU를 맺으며 스타트업 등에 대한 투자 협력을 강화했다.

올해 인베스트서울은 창조산업 등 서울시가 육성하는 유망 기업에 대한 해외 자본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용 창출 효과가 큰 글로벌 기업의 아시아태평양 지역본부와 북미지역 테크 유니콘을 서울로 유치하는 데에도 공을 들일 방침이다. /김현정 기자

폐업 걱정 뚫… 소상공인 생계지원 돕는다

서울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 기준 3억 이하로 확대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가입 지원대상 기준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사망·퇴임·노령 등의 이유로 생계에 어려움이 발생하면 그간 납입한 금액(월 5만~100만원)에 연 복리이자율을 적용해 일시에 지급하는 공적 제도다.

시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촉진하

기 위해 신규 가입 소상공인에게 1년간 24만원의 희망장려금을 지원한다. 올해 시는 수혜 대상을 연 매출 2억원 이하에서 3억원 이하로 늘린다.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 공제사업단 및 각 지역본부·시중은행을 방문하거나 노란우산공제 누리집(www.8899.or.kr) 또는 앱에서 가입할 수 있다. 가입 시 서울시가 지원하는 ‘희망장려금’도 동시에 신청 가능하다.

이와 함께 시는 소상공인이 폐업하게 되면 직업훈련 비용, 실업급여 등 재취업·창업을 도와주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환급’ 대상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1인 자영업자에게만 고용보험료를

지원했으나, 올해부터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에게 보험료의 20%를 환급해 준다.

소상공인이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하면 5년간 최대 100%(서울시 20%, 정부 80%)를 지원받을 수 있다.

최선해 서울시 소상공인담당관은 “자영업자가 불가피한 폐업 상황에서도 어려움을 헤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서울시가 적극 지원하고 있으니 많은 신청을 바란다”며 “경기 침체 장기화로 힘든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성남시,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에 92억 투입

급식도우미, 환경정비 등 7개 분야
시급 1만1960원 적용, 봉사료 책정

성남시는 올해 말까지 92억원을 투입해 어르신 소일거리 사업을 편다. 65세 이상 성남시민 4600명이 참여할 수 있는 규모다.

어르신 소일거리는 7개 분야에서 추

진된다. 분야별 참여인원은 경로당 안전지킴이 390명, 경로당 급식도우미 450명, 환경정비 3140명, 클린공원 지킴이 300명, 환경감시단 190명, 복지도우미 100명, 실버 금연구역 지킴이 30명이다.

이중 경로당 안전지킴이·급식도우미 2개 분야(840명)는 지난해 말 모집

절차를 마치고 지난 1월 2일 먼저 사업을 시작했다.

환경정비 등 다른 5개 분야(3760명)의 소일거리는 오는 2월 16일까지 참여 신청을 받는다.

오는 3월 3일부터 연말까지 하루 2시간씩, 한 달에 12시간 소일거리를 하고, 월 봉사료 14만3520원을 받는 조건이다. 올해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1960원을 적용해 봉사료를 책정했다.

/성남(경기)=김대의 기자 dykimi@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7:31 | 해질 / 18:02

2월 7일 (수)

음력 : 12월 28일

수도권 날씨

-2 ~ 4℃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버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美, 北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관련 “면밀 주시…동맹 협의 지속” /사진 뉴시스
▲美 대법원, 8일 트럼프 후보 자격 심리…중대 전기

▲日정부, 해상풍력발전소 설치구역 영해→EEZ로 확대
▲中해경, 남중국해 분쟁수역서 필리핀 해안경비선 퇴각



▲사우디, 3월 아시아 인도분 원유가 예상밖 동결
▲이스라엘 국방 “하마스 지도부 신와르 도망치느라 지휘 못 해” /사진 뉴시스



보험업계
고령자·다자녀 등
특약으로 돌파
08

metro®

Life

롯데칠성
연매출
3조클럽
L1



인조반정 거사 논했던 곳, ‘풍류의 멋’ 품은 심터로



되살아나는 서울

종로구 ‘세검정 터’

◆인조반정 피하며 검 씻은 곳

지난 4일 오후 세검정 터를 방문했다. 지하철 3호선 홍제역 1번 출구로 나와 유진상가 앞에서 7730번 버스를 타고 5개 정류장을 이동해 세검정·상명대 정거장에서 내려 목적지에 도착했다.

세검정은 누리끼리한 화강암 암반 위에 우뚝 솟아 있다. 정(丁)자형의 팔작지붕이 건물을 덮고 있는 형태다. 지붕 모습이 잘 떠오르지 않는다면 박쥐가 양 날갯죽지를 짝 펴고 비행하는 장면을 상상하면 된다. 한적한 주택가 한켠에 더부살이하고 있어서 인지 이날 정자 일대는 평화롭기 그지없었다. 아이들은 정자 밑 바위틈에 숨어 숨바꼭질을 하거나 막대기로 홍제천 바닥을 쿡쿡 찌르며 자연 안에서 뛰어놀았다.

과거 세검정은 지금처럼 평온하기만 한 장소는 아니었다. 이름의 유래를 보면 알 수 있다. ‘궁궐지’에 따르면 인조반정 때 김유, 이귀 등이 이곳에 모여 광해군 폐위를 의논하고 칼을 갈아 씻었던 자리라고 해서 ‘세검정’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거사 전 밖으로 새 나가면 안 될 비밀을 사방이 뿔뿔히 정자에서 한 연유가 궁금했는데 겸재 정선의 그림에서 그 실마리를 얻었다. 정선의 1740년작 ‘세검정도’에는 조선시대 정자의 모습이 묘사돼 있다. 당시 세검정 주위엔 담장이 쳐졌고, 길가와 개울 쪽으로 문이 나 있어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좋은 장소였다.

정자의 조성 시기는 불명확하지만, 1748년(영조 24년) 정자를 개축하며 세검정이라는 현판을 달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세검정의 모습이 달라진 이유

서울 종로구에는 홍제천의 천변 풍경을 즐기기에 지은 정자 ‘세검정’이 자리해 있다. 서울의 북방 관문이라는 지리적 특성으로 인해 숙종 때 세검정 일대에 북한산성과 서울 도성을 잇는 탕춘대성이 지어져 무신들이 정자를 자주 찾았다. 겸재가 빼어나 화가나 시인 같은 묵객들도 세검정에서 풍류를 즐겼다. 겸재 정선이 그린 ‘세검정도’와 다산 정약용이 쓴 ‘유세검정기’ 등에서 당시 세검정의 풍광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시대, 무신·화가 천변 풍경 즐기던 곳
인조반정 칼 씻던 자리 ‘세검정’ 이름 붙여
1941년 불에 타 사라진 후 1977년 정자 복원

널따란 바위 ‘차일암’서 세초작업 하기도
풍류 즐기던 조선시대 생활문화 볼 수 있어



4일 오후 시민들이 세검정 터 일대에서 여가를 즐기고 있다.

는 1941년 불에 타 사라진 것을 정선의 ‘세검정도’를 바탕으로 1977년 복원한 것이기 때문이다. 정자를 새로 지을 때 조선시대 당시 모습을 그대로 살려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들었다.

◆실록 편찬 때 사용한 종이 씻던 곳

세검정이 들어선 널따란 바위는 ‘차일암’으로 불린다. 바위에 차일(궁중 행사 때 햇빛을 가리기 위해 치는 휘장)을 쳤던 흔적이 있어 이 같은 이름이 붙었다. 차일암에서는 세초 작업이 이뤄졌다.

세초는 실록에 사용된 사초(史草·사관이 시정을 적어 둔 사기의 초고)를 없애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지금이야 종이 파쇄기로 쉽고 간단하게 중요한 문서들을 없앨 수 있지만, 당시엔 사람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해야 했다. 실록 편찬에 쓰인 초본은 물로 씻어 글자를 지운 뒤 종이를 재활용했다. 세초까지 하면서 원자료를 철저하게 삭제한 까닭은 대외비로 관리되던 사초의 유출을 막아 완성된 실록에 시비가 걸리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차일암에서 먹을 땀 이유는 근처에 고급 종이를 제작하던 ‘조지서’라는 관청이 있어 인력 동원이 쉬웠고, 북한산에서 흘러내린 홍제천 맑은 물이 있어 세초에 적합한 곳이었기 때문이다. 차일암에서는 실록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세초연’이란 잔치도 열렸다.

종로구는 “세검정 터는 경치가 좋은 계곡에 정자를 지어 자연을 즐기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생활문화를 잘 엿볼 수 있는 곳”이라며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의 무대가 됐던 서울의 도성 밖 경승지”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hjk1@metroseoul.co.kr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



▲韓 경계대상 1호, ‘요르단 유일 유럽 파’ 알타마리 막아라
▲클린스만호 결승행 확률 68.8%…우승 확률은 33.4%
/사진 뉴시스

▲‘불법촬영 혐의’ 항의조, 프랑스 아닌 튀르키예로 가나
▲KBO, 새 시즌 도입되는 규정·규칙 자료 선수단에 배포



▲KIA 퓨처스팀, 8일 일본서 스프링캠프 돌입
▲전국체전 순위 제도 개선된다…대한체육회, 태스크포스 구성
/사진 뉴시스